



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

김동연 지사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 강조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간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점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비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점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 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자, 지역기획자, 시군 등이 힘을 합쳐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처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워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속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보성 동계 전지훈련팀 살펴

의정부 상우고교 야구팀, 보성 회천생태공원야구장서 구슬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2024 시즌 동계 전지훈련지로 보성군을 찾은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야구팀을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의정부 상우고교 야구팀은 오는 7월까지 한 달여간 보성 회천생태공원야구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을 찾은 감독과 선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키워 올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훈련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보성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동환 의정부 상우고교 야구팀 감독은 “올해가 첫 전남 방문인데, 야구장 시설이 매우 좋다 보니 선수들의 훈련에 큰 도움이 돼 내년에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온

화한 기후,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며 도내 체육시설에 총 2천149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신축 개·보수를 추진,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췄다. 그 결과 이번 동계 시즌 축구, 야구, 육상, 태권도 등 952개 팀, 연인원 24만 명의 선수가 전남을 방문해 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227억 원에 달한다. 또 전지훈련 선수단과 가족들이 도내에 체류하는 동안 음식점과 숙박업소, 마트, 관광지 등을 방문하면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생활인구 유치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도 최적의 스포츠 기반 구축을 위해 유치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시군과 협조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경북‘글로벌대학 30’설명회를 시작으로 최종선정을 향해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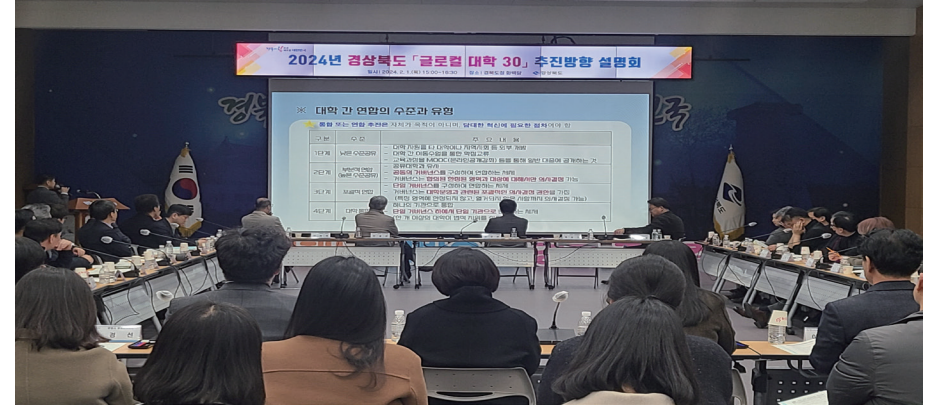
2024년「글로벌 대학 30」공모에 도내대학 선정을 위한 대학 설명회 마련 글로벌 선정대학 우수사례 및 선정 노하우 등 도내 타 대학들과 공유

경상북도가 ‘글로벌대학 30’의 성공적 선정을 위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선제 대응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경상북도는 적극적 리더십으로 질적·양적 모든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냈던 지난해의 기초를 이어가기 위해 1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내 각 대학 기획처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글로벌대학 30’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교육부·글로벌

대학 30 공모사업에 작년처럼 도내 많은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글로벌 선정대학 주요성과와 노하우 공유, 경북도의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경북 글로벌 대학 추진 현황 보고와 향후 추진계획 설명’ ‘글로벌 대학 혁신안 주요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상수 경상북도 교육협력과장이 글로벌대학 비전 및 목표, 예비 지정 규모, 향후 일정, 주요변경 사항 등

2024년 ‘글로벌대학 30’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사항과 경북 글로벌대학 추진현황과 핵심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이현재 안동대학교 기획처장은 전통문화 기반 K-인문학 중심 융합 인재 육성, 백신산업과 농생명 융합분야 기술개발 등 주요 혁신안을 공유했다.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은 전국 유일 국립립 통합안을 핵심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희갑 포항공과대학교 기획처장은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조성, 환동해

글로벌 연합 아카데미 구축, 기술인프라 기반 스타트업 마련 등 오랜 시간 연구와 노력으로 획득한 주요 혁신전략에 대한 구체적 노하우를 전수했다.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적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연구·개발한 기술과 정보를 이용해 지역 산업체를 유치·발전시켜 지역에 정착 시킴으로써 교육과 산업 그리고 지역의 동반 발전을 가져오는 혁신생태계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대학별 혁신과제 기획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대학 분과별 최종 계획서 중간 점검과 실무회의 등 선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미리 준비했다. 교육부 ‘글로벌대학 30’공모일정이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려면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와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런 인재를 키워낼 글로벌 명문대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도내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대학에 선정되어 우리 경북이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글로벌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폐교된 서남대가 새롭게 피어납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3개 학부 신설



한국어 학당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

피어나다 남원

김대일 도의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선거구 변경에 도차원 입장표명 촉구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경북북부권 발전 역행

경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 지난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에 대해 경북도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안동과 예천 지역 사회는 지난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며, '경북북부권 거점 도시'로 도약을 위한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했으나, 최근 여·야 국회의원의 선거구 잠정합의안으로 안동·예천군 선

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선거구로 하고,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예천 통합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되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 분리안은 십 수년간 협력해온 안동과 예천 지역 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고, 경북 북부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상이다"고 개탄하며,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 발전에 대해 '10만 자족도시',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같은 청사

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들의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현행 선거구 유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 시대는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울산시의회 "세계적인 브레이킹 선수들, 내고향 울산 자랑스럽다"

회의 전 공연 관람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의 환호와 격려 이어져



2월 2일 오후 2시,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브레이킹(Breaking)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들, 울산 브레이킹협회,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브레이킹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공연을 즐기고 울산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브레이킹은 1970년대 초, 미국의 클럽에서 음악 중간(break time)에 춤을 추는 댄서들(B-Boy)로부터 전 해오는 힙합 댄스의 일종이다. 비보잉(B-Boying)이나 브레이킹,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불려왔으나, 공식명칭은 브레이킹(Breaking)이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선 보일 예정이다.

이상수 울산 브레이킹 협회장은 "세

계적인 불이 일고 있는 브레이킹의 중심에 울산 출신 선수들이 많다"며 "협회는 스트리트 댄스 공연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선수 육성, 선수재활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한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울산 출신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인재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공연 무대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종섭 위원장은 브레이킹 협회와 선수들에게 "문화도시 울산을 가꾸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기획하고 활발하게 공연에 달라"고 하면서 "시 관계부서는 울산의 브레이킹 선수들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공연에서는, 선수들이 직접 나서 수준 높은 브레이킹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 김두겸 시장, 김기환 시의장 등도 참여하여 비보잉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함께 즐기며 격려했다.

황규진/기자

'황순자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서둘러야'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원순환 실현해야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은 2일(금),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수단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으며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10월 기준, 29,586대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사용하지만, 중요 부품인 배터리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배터리가

급증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대구시도 대기업과 투자협약 체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대구시의 산업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것과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 생산 및 시민 편의를 제고 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황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과 산업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발전시키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구시가 부단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윤근수/기자

남해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제개정 조례안 등 11건 가결, 5분 자유발언 2건

남해군의회가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가결 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장병복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앞으로 노인 주거환경 조성과 공급이 노인복지 정책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남해형 실버타운 산업이 활성화 되면 지역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볼러울 것"이라며

집행부에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실버타운 조성 및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자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제안했다.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면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생활편의시설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해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읍면 신임의정들을 초청해 본회의 방청 후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유준/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관광마이스크 소관 위탁·대행사업 수수료 제각각 등 지적!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이 지난 1일,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관광마이스크 및 산하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관광마이스크에서 추진 중인 위탁·대행사업 수수료가 사업별, 기관별로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수수료 책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박희용 의원은 위탁·대행 수수료의 경우 단적인 예로 부산관광공사와 부산관광협회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부산관광협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업별로 다르지만 대략 4~5% 수준이었고, 2021년도부터 2023년 도까지 최대 10%까지 수수료를 책정하였다가 최근에는 8%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국장은 "민간위탁업무처리 지침"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서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레나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위탁·대행 수수료가 부산관광공사의 경우는 사업비의 10%, 부산관광협회는 사업비가 아닌 집행금액의 8%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 검토 후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한편, 부산관광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은 24년도에 총 5건에 24억 원 정도로, 주요 사업에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유치 등이 있다.

박 의원은 관광마이스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관광협회의 회원사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마이스크를 비롯한 소관 기관과 부산관광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소통강화를 당부

하였고, 이에 부산관광공사는 분기별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덧붙여 박 의원은 해수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대해 부산 해양레저관광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는 맞지만, 재원 확보에 있어 민간유치를 80%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부분에 있어서 법령 근거가 마련되면 의회차원에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관광공사가 관광분야 전문기관으로 부산시 관광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길 당부하였고, 벡스

코는 매년 경영평가가 1위인데, 경영목표가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타 기관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희태/기자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35개 안건 처리 후 폐회

2024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받고 도정·교육행정 방향 모색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1일 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도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정의 개선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책 마련 촉구 등 4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받는 한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두 후보자 모두 적합으로 검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민중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5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해피해의 아픔을 씻어내도록”... 봉화군, 수해 재발 막기 ‘총력’

박현국 봉화군수, “봉화군이 수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관계기관 모두가 한 마음, 한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혀

지난해 여름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봉화군이 박현국 군수를 필두로 두팔을 걷어 부치고 봉화군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건설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해 대규모 수해 피해의 아픔을 잊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번에 왜 이와같은 엄청난 수해를 입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봉화군민들 모두가 안심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봉화를 건설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즉각적 응급 복구 추진!

이를 위해 먼저 봉화군은 응급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신속히 추경성립전 예산 40억 원을 편성해 10개 읍면에 응

급복구를 위한 장비대를 교부했다.

하천 제방 붕괴 복구, 마을진입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 응급복구, 사면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함과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또한, 지역 민간단체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자발적 수해 복구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특히 수해 발생 이후 약 한 달여간 각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매일 현장 방문해 응급복구현장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과 모범을 보였다.

◇주민생활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봉화군은 수해 피해를 입은 4,614세대에 135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원칙으로 지급 완료해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특히 주택 전파, 반파 등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10가구 21명을 위해서는 그들의 아픔이 곧 군의 아픔이기에 이를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생활보급자리를 조속히 마련했다. 임시주택은 이재민들이 기존의 생



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거주지 주변에 설치했으며 최장 2년 동안 지원 태도도 조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가전제품도 지원했으며 TV 요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삶의 터전을 새로이 일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호우 피해 복구액 558개소, 국비 1,566억 원 확보!

박현국 봉화군수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부를 찾아 다녔다. 지난해 7월 박 군수는

행정안전부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에 참석하는 등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호우피해 대책을 원천적으로 새롭게 조명했다. 만약, 피해 보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가 발생한 구간만 임시 땀질식으로 피해원상복구를 실시할 경우 지금과 같은 폭우 시에는 또다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군수의 이와같은 노력 결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심의 의결된 확정 복구계획에 군에서 요구한 개선복구사업 112억 원과 그 외 하천의 기능복원사업 124개소 947억 원이 반영되는 쾌거를 거뒀으며,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또한 490억 원에 달하므로써 봉화군은 지난 호우피해 입은 이후보다 더욱 잘 정비된 피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 추진!

앞에 언급드린대로 봉화군은 피해 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예방을 위한 전면적 개선복구 추진에 힘쓰고 있다.

호우에 유실됐던 하천정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및 교량 재가설, 사면피해 복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해 10월 봉화군 예산에 수해복구 조기 추진 T/F를 전격적으로 구성해 인력자원을 총동원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 피해 복구에 전념해 왔다.

특히 복구금액이 10억 이상인 7곳을 (지구단위 2곳, 도로시설 2곳, 하천 1곳, 산림 2곳)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또한, 봉화군은 주요복구 공사에 대해 신속한 발주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복구비 교부 전에 군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실시시설을 조기에 발주, 지난해 12월 중 완료했다.

그리고,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원 미만 현장은 4월, 50억 원 미만 사업은 6월까지, 50억 원 이상 현장은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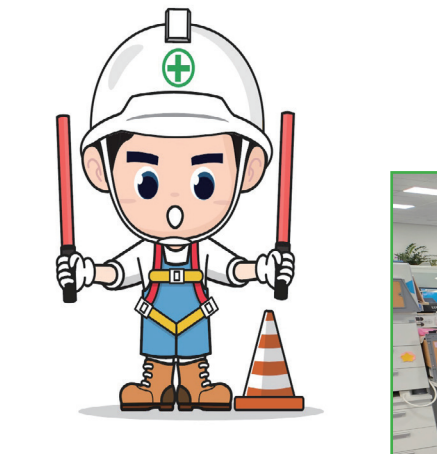
또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전면 개선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봉성면 오그래미 지구(수로개선 1km, 마을안길 0.4km), 소천면 살래천 지구(도로 1.6km, 하천 0.8km)는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실시하며,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봉성면 창평천, 춘양면 운곡천, 상운면 구천과 토일천 지역에도 750여억 원을 투입해 경상북도에서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하천 복구 공사를 실시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수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관계기관 모두가 한 마음, 한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제 봉화군은 박현국 봉화군수를 필두로 전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전 군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내에 지난 수해로 입은 피해복구가 복구돼, 너도나도모두가 ‘쾌지나칭칭나네’노래를 부르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봉화건설에 매진해 나가는 행복한 군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윤근수/기자



여주시공사, 최고경영자(CEO)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나서

여주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일, 최고경영자가 직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유·노출사례 홍보영상을 기반으로 틀에 박힌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 중심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및 대응방안,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내용으로 임직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공사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6년 연속 고득점 획득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24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고도화, 정보보

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 도입 사업을 체결했으며, 개인정보보호TF 구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임명진 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임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과 역량이 강화됐길 바라며,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들이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해달라”

수원시,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하고 종합상황반 운영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일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교통, 복지 분야에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또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교통, 안전 부분에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달라”며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변화와 진보를 이뤄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이 주재한 이날 종합대책 보고회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각 실·국·소장, 4개 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설 연휴(2월 9~12일) 4일 동안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

청소·재난·환경·대중교통·관광 대책반 등 2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상황근무 대책반’이 연휴 기간 근무하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 상황근무 대책반은 1일 54명 근무자로 편성된다.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등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 16개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는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다



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2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은 7일까지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교통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하며 귀성·귀경객들에게 교통상황을 안내한다.

또 구별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 1차로 진행한 명절 성수품 물가 관리 모니터링을 2월 5일 2차로 진행하고,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점검을 2월 8일까지 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에게 급식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건강을 살핀다. 시설 입소자에게는 귀향 차표를 지원한다.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기부 물품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성묘 안전대책으로 수원시 연화장,

오목천동 공동묘지 등 관내 공동묘지 일원에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또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방문 차량 통제와 계도 인력 1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정조테마공연장 야외 마당에서는 설맞이 전통놀이마당을 운영하고, 화성행궁, 관내 박물관, 관내 수목원(설 당일 휴원), 수원 시립미술관,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고(12일 휴관)는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4개 구 보건소는 24시간 운영하는 보건소별 2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24시간 운영 응급의료기관 7개소, 비상진료 병원 64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80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산불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오전 10시~오후 6시 산불 상황 근무조를 운영한다.

김범상/기자

이천쌀 미국 인기로 쌀 가공품까지 수출로 이어져



이천시가 2022년부터 진행한 대미 쌀 수출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3년 연속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그동안 수출을 진행한 뉴욕(1월 31일)으로 19톤, 첫 수출하는 시카고(2월 2일)로 19톤을 선적하게 되어 이천쌀 38톤과 임금님표 이천쌀 가공식품인 ‘임금님표이천쌀 명품컴퓨터’ 6,000개도 함께 선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K-푸드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월 2일 이천시 신둔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진행된 대미 쌀 수출 기념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도, 시의원, 그리고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을 비롯해 황순철 모가농협조합장, 정하용 신둔농협조합장 및 조합원, 율희동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 농민단체 등이 참석해 이천 쌀의 3년 연속 대미 수출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이천시는 농업인 중심,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과 농업관계자들이 성과 중심의 혁신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선제적 농업정책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유통,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은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 해 첫 이천쌀 수출은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선제적 쌀 수급조절 방안과 궤를 같이 하는 첫 사례로 쌀 수출을 추진해 온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천 쌀이 우수한 밥맛에만 의존하지 않고, 잔류농약검사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명품쌀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이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2024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

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승강기 교체, 수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023년에는 2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4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1억2천만원 예산을 편성, 단지 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설치 및 교체한 지 15

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 수선 등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광주시 시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23일까지며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련 서류를 광주시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알림마당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세한 시장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김범상/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안양시,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오는 29일까지 신청

최대호 시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안양시가 지난해 이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임산부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에코이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산·출산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임산부 821명이며,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에코이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경기도 김동연, “갈매역 GTX 정차에 힘 모으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구리 갈매역 정차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구리시 갈매역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GTX가 통과하는 지역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정차역이 없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갈매역 인근 주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갈매역에 GTX가 꼭 정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이미 입주해 있고 역세권 개발 계획도 있어 이곳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면 소음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김동연 지사, 2일 GTX B노선 갈매역 정차 현장 확인

김동연 지사는 “갈매역 정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며, “갈매역은 인천시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총 82.8km 노선으로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투자 구간은 인천대입구역~용산역, 상봉역~마석역으로 올 상반기 중 민자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갈매역 정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GTX협의회 등을 통해 국토부에 갈매역 정차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노선 1시군 1개역 이상의 설치를 위해 계속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갈매역 현장 방문에 이어 김 지사와 윤호중 의원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선 철도 지하화, 한강동부하차 전용도로 개설, GTX 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등 구리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024년 현장 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특별위원회 격상,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기능 추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3건 합의 의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은 2월 1일과 2일 양일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우식 공동단장(국민의힘, 비례), 조성환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해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참석했으며, 의회 조직개편 추진동력 확보 등 혁신추진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1일차 현장 정책회의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입법영향분석 및 비용추계 산정 등 현행 청취를 했으며, 특히 예산정책처에서는 향후 기관 간 상호협력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는 의안 자동상정제도 및 소위원회 제도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및 예산분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혁신추진단 자문위원인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윤여문 행정안전조

사관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전진영 정치의회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원이 참석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일차 현장 정책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하여, 정책지원관의 운영 실태 및 선도적인 광역의회의 역할과 지방의회 운영의 선진화 및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양우식 공동단장은(국민의힘, 비례)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전국 최대 의원인 156명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광역의회로서 여야간의 협치, 경기도의회와 도·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성환 공동단장은(더불어민주당, 파주2) “도·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도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나아가 의정과 도정이 접목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만드는 등 의회 운영의 제도적·행정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구성된 혁신추진단은 양당 교섭단체가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지난해 9월 구성됐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효준 의원, 경기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 디딤돌상’ 수상!

2013년부터 10년 이상 대학·직장·의회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와



경기도의회 유효준(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31일 경기여성단체연합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여성인권 디딤돌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지역 주요 여성단체들의 연대조직인 경기여성단체연합은 매년 성평등을 위해 기여해온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유효준 의원이 수상한 ‘여성인권 디딤돌상’은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묵묵히 활동해온 활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유효준 의원이 2013년부터 10년 이상 대학·직장·의회에서 페미니스트로 성평등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온 것을 높게 평가했다.”라며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유효준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13년 대학 입학할 때 선배들로부터 여성주의 운동 같이 하자고 제안받고 참여 학생회 정책국장을 맡는 등 활동을 시작한 것이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경기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고, 이어서 “페미니스트는 일상 속에서 마주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사

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제 삶속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경기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며 활동할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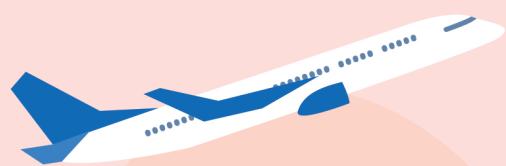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공개한 페미니스트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된 유효준 의원은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당선 이후에도 성평등조례와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의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성평등 관점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채용과정의 성차별과 관련해 피해자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일터인 경기도의회의 성차별에도 목소리를 내어 왔다.

시상식 종료 직후 경기여성단체연합과의 대화에서 유효준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성평등기금이 폐지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후퇴하는 등 다양한 성평등민주주의의 후퇴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의 현 상황을 설명한 뒤, “2024년에도 이러한 시대착오적 퇴행에 맞서서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2024년에도 성평등 관점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유효준 의원은 이날 시상식 행사가 종료된 이후 경기도의회로 돌아와 ‘경기도 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단체의 단식농성 관련해서 단식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김범상/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담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경북 희망 2024 나눔캠페인'성황리 종료...모금액 초과 달성

13년 연속 모금목표 달성, 193억원 모금으로 사랑의 온도 117도 달성

경상북도는 지난 1일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경북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종료식'을 진행했다.

종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우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진복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도 단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2023. 12. 1.~2024. 1. 31.)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경북도민과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금 목표액인 164억 6,000만 원을 초과한 193억 원이 모금되어 사랑의 온도 117도를 달성했다.

이로써, 경상북도는 13년 연속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한 경북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모여진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도내 취약계층의 생

계비, 의료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방과 후 아동보호 지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찾아가는 이동 복지 지원, 경북도 내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통해 전액 사용된다.

전우현 경북공동모금회장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사랑의 온도 초과 달성이라는 큰 열매가 맺어진 것이라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캠페인 기간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경북도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 달성은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덕분이다."며 "나눔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을 어려운 이웃에 나누어 모두가 존중받는 경북을 실현에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군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도약

2024년 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전략 선정

윤경희 군수,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해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청송"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핵심전략은 아래와 같다.

▲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및 안보 위협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활동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축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제고, ▲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및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용하여 불의의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장항목에 해당할 경우 최고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적 안보환경 가운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과 읍지연습의 내실화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철저한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어 그동안 이상기후로만 여겨졌던 극심한 폭우, 폭설, 한파, 폭염 등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울인다. 우선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여천(파천면)·합강(진보면)·얼음골(주왕산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에 55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범수천(주왕산면)·감곡천(파천면) 2개 지구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급 사업 및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으로 총 32개소에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청송읍 월막2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무료버스와 천원택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료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전문단지 조성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4억9천만 원, 톱밥·퇴비부숙제 구입, 약취저감장치지원 등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에 6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환경개선 장비,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축사관리용 CCTV, 축사환기시설지원 및 우수한 품질의 한우개량을 위한 정액보관용 질소통 등을 지원하여 160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방역기자재 및 예방약품 구입,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 등에 8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건전한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비(100마리), 마당개 중성화수술비(1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100마리) 등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해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2024년 甲辰年 을 한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착착...「부울경정책협의회 제3차 조정회의」 개최

올해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안) 심의 후 이달 15일까지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안건 상정 예정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지난 2일,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울경정책협의회 제3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조정회의는 지난해 제1~2차 조정회의에 이어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초광역권발전계획(‘23~’27) 수립에 따른 올해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안) 심의 등 부울경 초광역 협력 증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4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안) 심의 ▲부울경정책협의회 안건 협의 및 실무협의회 추진계획 보고 ▲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안)이 부울경정책협의회 심의를 통과, 이달 15일까지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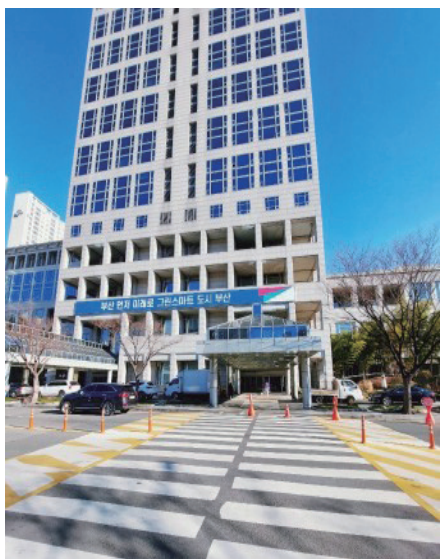
특히, 이날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부울경정책협의회, 부울경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핵심 협력과제 선정 등 경제동맹 출범 2년 차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

했다.

전선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부울경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울경을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에 발맞춰 부울경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3월 추진단을 출범해 3개 시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실무 부서장 등 관계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5년 연속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공모 선정

올해 선정된 10개 운영 기관 중 최대 규모

국비 4억 3천6백만 원 확보, 2023년 예술로 사업 문체부 장관상 수상 가산점으로 올해 운영 기관 중 최대 규모로 선정 총 11개 기업·기관(마을), 참여 예술인 55명 지원

가치 확장과 예술직무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참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이 한 팀이 되고 예술인의 시각으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펼쳐가며 기업·기관의 이슈를 해결한다.

대구는 '23년도 예술로 지역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최우수 사례)을 수상해 운영 기관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됐다. 올해 문체진흥원은 총 11개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 55

명을 지원하며 공모 선정액은 전국 10개 광역문화재단 중 최대 규모다.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를 통해 예술(인)을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창조 인력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기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의 참여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은 2~3월 중 공모 예정이며 참여 예술인에게는 6개월간 120~14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은 대구 지역 기업·기관(마을)/예술인이며, 예술인 경우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

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관련 문의는 문예진흥원 예술지원센터(☎053-430-1296)이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만나 삼중수소 누출 대책 등 현안사업 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조속 반입, 원안위 경주 이전, SMR 연구 및 실증 규제체계 마련 등 요청

주낙영 경주시장,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후 인근 주민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대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 피해와 불안감 해결 위한 정부 차원 대책" 요구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김남용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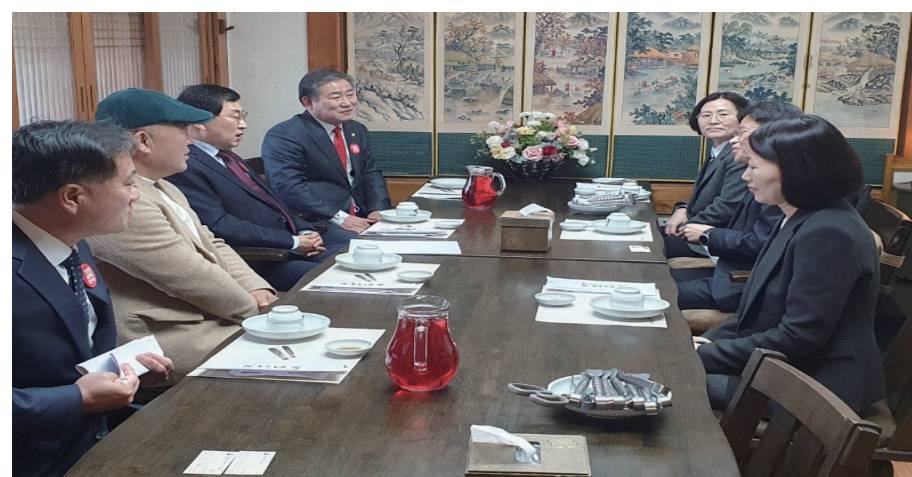
먼저 주 시장은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이후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조속한 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SMR 연구시설의 성공을 위한 신속한 규제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조속한 제정, 2단계 중저준위방폐장 안정적 건설과 관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경주 유치 등도 언급했다.

이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주지역의 원자력 관련 현안과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과 지역이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영양군,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고추과정 추가교육 및 GAP인증 교육 실시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일 (목),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추 추가 교육 및 GAP 인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교육은 GAP인증 기준 및 절차, 실천요령,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PLS) 기준 등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진행됐으며, 고추 교육 과정을 연계하여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고추 과정을 듣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추가로 진행했다.

GAP인증 제도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수확 후 관리·유통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을 뜻하며, 생산이력추적을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농산물 이력을 확

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조용완 소장은 "GAP인증 교육을 통해 영양군의 농산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고추 추가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해양수산시책 설명회, 4년만의 개최로 어업인 열렬한 호응

해양수산분야 어려운 현실의 돌파구 마련과 분야별 대응전략 발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 산업화, 스마트양식 고도화... 민·관협력 다짐

경상북도는 지난 1일, 어업기술원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 수산업경영인, 업종별 단체, 수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해양수산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 K-블루푸드(김, 참치, 어류가공품)의 글로벌 열풍, 양식산업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 접목 등 급변하는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 유통·가공시설 스마트화로 수산 식품 산업화 ▲ 스마트 양식 시스템 전환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 ▲ 어촌·어항·연안지역 현대화로 어촌 활력 증진 ▲ 조업환경 개선으로

어업 현장 안전 기반 구축 ▲ 미래 수산업 전환을 위한 수산기술 개발·보급 ▲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등 3대 목표 5개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오징어 채취기 어업인 박강호 씨(54세 울진)는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생산량 감소로 채취기 업계의 장기 불황 등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어촌에 선제적으로 어업경영자금 이자와 출여경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정책을 마련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년간 개최하지 못해 아쉽게 그치지 않았는데, 올해 현장에서 어

업인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면서, “위태로운 해양수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가 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에 어업인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서 수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변모해, 국민소득 5만 불을 달성하는 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효도수당 연 2회 '15→30만원' 상향 지급

- 영덕군, 세대 부양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발빠른 행보 돋보여

영덕군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속식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각각 15만 원씩 지급하던 효도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해 올해부터 증액해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올해 설명절 전인 오는 8일에 인상된 금액인 30



만 원을 첫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덕군 외에

도 상주시, 울진군, 봉화군, 김천시가 있다.

장문화/기자

군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안전교육

김진열 군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군위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추진했다.

군은 2024년 본격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앞서 변경된 운영사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전달했으며, 군위경찰서에서도 참석하여 총기 사용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구성된 관내 모범엽사 32명은 이번에도 연말까지 야생멧돼지 ASF 확산 우려지역의 멧돼지포획과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할 계획이다.

멧돼지, 고라니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로 구제 요청을 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686마리, 고라니 3,084마리를 포획했다.

김진열 군수는 “최근 군위 인근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방지단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총력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강영석 상주시장 “어린이놀이시설은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공간, 안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상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16일간)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관내 주택단지, 도시공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 15곳의 어린이놀이시설이며,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행 여부와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후 확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미흡 시설에 대해 정기시설검사와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의 무이행행위를 독려할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공간이며,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주시, 전 세대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건설 '박차'

'시민행복' 위한 문화예술 변화 '예고', 정체성 살리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 '매진' 박남서 영주시장, “다양한 시민 참여 문화 콘텐츠를 개발, 지역 예술 성장 기틀 마련 등, 올 한해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영주시가 올해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시는 지역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선비문화를 대표로, 전통의 보존·계승과 함께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예술 사업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발표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선비문화 콘텐츠 활용사업 모색

시는 먼저, 선비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향교와 유교문화 단체들을 중심으로 '향교 문화 전승 보전 지원'과 '명륜학당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선비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선비가 유치원에 간 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유림과 유치원이 멘토·멘티를 맺어 유학과 동요를 상호교섭하고 플라마켓과 선비클린 전시회를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세대 간 장벽을 낮추고 서로간의 이해와 문화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딱딱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선비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친근한 '선비 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전통문화 계승·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영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역사 인물인 삼봉 정도전의 생애를 다룬 '유지컬 정도전'과 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과 가치를 담은 음악극 '상여소리'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과 음악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영주의 문화가치와 역사적 자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도비 지원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 반응이 뜨거웠던 일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시민 문화 동아리 지원 ▶아동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도모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문화인 영주 365 ▶영주 문화예술 놀이터 ▶문화인 영주 양성소 등 세 가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새로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마을형' 분야

의 소규모 사업으로 역세권 및 학사 골목 재생 등 휴전동 일대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지역 재생과 함께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함께 느끼고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문화가 샘솟는 도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영주

학생들과 청년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영주시가 처음 개최한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처럼 획기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참가하는 '청소년 예술축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 학생과 청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다양한 시민 참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올 한해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고려대장경 판각의 신비, 남해에서 체험한다~

경상남도 지역특화사업 대상지 선정, '목판인쇄 문화 복원'...체류형 관광 기대 장충남 군수,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



고려대장경 판각지인 남해군에서 '목판인쇄 문화 복원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 대상으로 '남해군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 대상지 발굴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남해군을 비롯해, 통영(사량도 덕동마을 백일홍 경관 사업)과 합천(운석총돌구

소독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 대상으로 선정된남해군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 사업은 고려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했다는 학술연구를 토대로 추진된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임은 물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은 이미 지난해 '고려대장경 판각지의 현대적 재발견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관련 학계와 불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고려대장경 판각지가 남해'라는 사실이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었으며, 불교계와 관련 학자들은 "고려대장경 판각지 복원 사업을 통해 현대 기술을 접목한 전시·교육·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준/기자

이에 따라 남해군은 경남도의 연구용역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고려대장경 문화거리 조성, 산다나무 자생지 복원, 화방사 사찰 문화사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체류형 관광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도비를 지원받아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그동안 남해군은 고려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는 사실이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김주수 의성군수, “노인일자리사업이 삶의 질 향상하는 최고의 복지정책”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히

의성군은 지역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안정적 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월부터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서 ▲공익활동 16개 ▲사회서비스형 5개 ▲시장형 9개 총 30개 사업단에 2,499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의성시니어클럽(관장 김성진)은 지난 1월 22일부터 1주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북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혹한기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별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일자를 조정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실시하는 대한노인회의의성군지회에서는 의성군 통합 의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통합돌

봄 대상자 조사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포터즈사업(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을 시행한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자동차산업 미래첨단먹거리로 대전환

지자체(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지난달 31일 경북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시(경주, 영천, 경산),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 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전제로 지원방안 모색과 수도권 과밀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등 인구감소에 대책 마련 내용으로 열렸다.

지역 자동차산업은 경주, 영천, 경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벨트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특구 내 근로자의 주거·교육·의



료 등 정부 여건 개선 지원으로 청년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추게 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특구 내 근로자의 주거·교육·의

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 대전환 관계기관 회의를 작년 9월부터 수차례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2월 말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시군 계획을 도 지방시대정책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경북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자동차부품업체가 많은 1,877개 업체

(전국 대비 14%)가 있으며,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집중해 있다. 이들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생태계를 첨단 모빌리티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특장부품·모듈단위의 지역적 특화단지를 탈피하여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하고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제을 경북도 소재부품산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연기관 등 전통적인 자동차부품기업이 첨단 모빌리티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체질 개선과 특화된 전략 수립으로 특구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해고, 2023학년도 국제교류(서울 한-중교류)

영해고등학교는 지난 1일(목) 국제교류반과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교류(한-중교류) 학생민간 외교 활동을 실시하였다.

영해는 2014년 중국 낙양제1고급중학교와 국제교류 MOU를 체결하여 상호방문형의 교류를 진행해 오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호방문형 국제교류를 잠정 보류하고 그동안 자율주제로 교내에서 국제교류 동아리활동과 중국과의 온라인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겨울방학에 중국 낙양제1고급중학교에서 국내 대학 탐방을 위해 서울 소재 여러 대학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한-중 학생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국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던 아쉬움을 달래고 서투르나마 그동안 배운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하여 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정보 교류하기, 영해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학생들에게 한국어 동화책을 선물하여 함께 읽고 미션 수행하기, 중국학생들과 경희대 입시설명회 함께 참여하기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초 소양을 갖

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생 민간외교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2학년 남00은 "중국 학생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중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애 교장은 이번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방학 중 중국 학생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중국 문화와 정보를 알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올해부터 상호방문형 국제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노력하여 우리 영해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장문화/기자



대구 남구 설명절 맞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홍보 캠페인 실시

대구 남구는 건강한 설명절을 위해 지난 1일 서부정류장역 지하철 역사에서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을 안내하고 시민의 금급증을 해소하며 관내 위탁 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안내가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하였다.

한편 이번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1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보유 여부 확인 후 당일 바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우선접종대상자는 ▲65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입원·입소자)이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65세 이

상은 접종 부위를 달리하여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이명자 남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대비해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주시 대영중학교, 로봇 대회에서 Gracious Sprit Award 수상

학교, 기업, 지자체, 문체부 첨단과학분야 지역 인재 양성

지역의 명문사학 대영중학교는 지난 달 27일(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2024 코리아로봇챔피언십(KRC)'에 참가하였다.

FEST 창의공학교육협회에서 주최하는 코리아로봇챔피언십(KRC)은 세계 로봇 대회인 FTC(first tech challenge) 출전권이 걸려있는 한국 최대의 로봇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국 43개 팀 중 영주 지역에서는 8개 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펼쳤으며, 본교 재학생 6명으로 구성된 팀 이글스(팀명)는 이번 대회의 핵심 가치인 '아름답고 소중한 프로젝션'이 돋보인 팀에게 주어지는 Gracious Sprit Award를 수상하였다.

이렇게 영주 지역에서 높은 참여율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기업(노벨리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벨리스는 지역 청소년들이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매년 지역 대회 개최와 고가의 최신 로봇 세트를 장학 물품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관내 학교에 로봇 등

아리 활동비 및 KRC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박준수(1년) 학생은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기뻐요. 선배들과 함께 로봇을 만들면서 많이 배웠고, 대회 경험과 추억도 쌓았어요. 인공지능 학습을 더 공부하여 내년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영중학교 권기홍 교장은 "최선을 다한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발의 3년 7개월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예산 지원의 물꼬를 트다



부산시 금정구를 포함한 23개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그간 방사능방재법 개정

에 따른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방사선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정구는 그간 불합리한 원전 관련 예산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원전동맹행정의 23개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으며, 100만 주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주민 서명부 행정안전부 및 국회 전달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0일 방사선비

상계획구역 주변 지원을 위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등 7건의 법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됐고, 마침내 1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

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자치구에도 배분하여 재정 보전의 형평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의 경우 35% (광역):65%(기초)의 비율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만 지원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금정구를 포함한 9개 구에 부산시 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를 균등 배분받게 되며 매년 약 8억 원 정도 지원이 예상된다.

김희태/기자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 설맞이 라이브커머스 개최!

이세용 본부장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올진군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설레는 경북을 드려용 특집"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에 올진군 사회적경제기업 2곳(농업회사법인(주)대성, (주)울진바다소리)이 참여해 최대 49%까지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선보였다.

농업회사법인(주)대성은 본 행사에 처음 참여한 만큼 시작부터 소비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농업회사법인(주)대성 권나영 대표는 "한울본부 덕분에 이번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게 되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며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감사인사를 남겼다.

본 행사는 '한울 소셜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진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3년도까지 총 32개 기업에 사업자지원사업비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울본부가 올진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사회적경제기

쇼핑 LIVE
[우체국쇼핑] 설레는 경북을 드려용 특집
LIVE ▶ 263,698

설레는 경북을 드려용 특집

마시기 좋은 진짜 배도라지즙

- 1 우리 지역 농산물인 배와 울진 도라지를 곱갈래 넣어 만든 진짜 배도라지즙!
- 2 물 한방울 넣지 않고 오로지 원재료 그대로 특수공법으로 추출한 진짜 원액!
- 3 무방부제, 무색소, 무과당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은 진짜 건강 먹거리
- 4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영양만점 배도라지즙!

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겠다"라

윤근수/기자

설 명절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안동시, 2월 2일 ~ 2월 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중앙신시장 44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 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진행

안동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44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물 카페 : 중앙시장4길 20)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8,000원 이상이면 10,000원 △68,000원 이상은 20,000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발송 품목, 일 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

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축산물 구입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병행 개최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물가에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설 연휴,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경북 아이돌봄 정상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으로 이용가능 연휴에도 양육 공백 가정(12세 이하)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경상북도는 4일간의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및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공휴일 요금은 평일 요금의 150%)이지만, 설 연휴(2월 9~12일)기간 동안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

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최소 이용시간 2시간 → 1시간으로 단축)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아이돌봄서비스(일시연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 신청 → 최소 2시간 전 신청)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최소 이용시간 2시간 → 1시간으로 단축)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육상 동계전지훈련 역대 최다인원 기록, 예천군 지역경제 훈풍

1월 한 달간 연인원 5,060명 방문.. 육상전지훈련의 최적지 위상 드높여



예천군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육상 동계전지훈련단의 훈련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해 초 육상국가대표 후보 및 꿈나무 선수단 방문으로 서막을 알린 전지훈련단의 발걸음은 한 달 내내 끊이지 않았으며 1월에만 35개 팀, 총 인원 5,060명이 예천스타디움을 찾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월간 역대 최대로 평균 약 1만 5천여 명의 전지훈련단이 방문해 오던 것을 감안할 때 연간 전체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단이 벌써 예천을 찾은 셈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지훈련단 유치 규모는 2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대회 참가 및

사전훈련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육상 한 종목에만 약9만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예천을 다녀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훈련 기간동안 지역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선수와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이들이 체류하면서 쓰는 비용은 겨울철 비수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미라 예천군 체육사업소장은 "지난해 아시아U20육상대회를 치르면서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육상 인프라에 국제대회 성공 개최의 신뢰가 더해져 긍정적 파급효과를 얻고 있다"며 "최고의 육상도시 예천의 명성이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 경기를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 촉구" 성명서 발표

안동·예천 도청소재지 반토막, 양 시군 상생발전 저해 행정구역·정치 분리는 지역발전 걸림돌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1일 09시 30분, 안동시청 2층 융부관 청백실에서 안동시 출입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예천 선거구를 존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 시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10여년간 안동과 예천 주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경북도청 신도시시는 10만 자족도시 건설, 경상북도 행정의 중심도시로의 성장, 경북 북부권 거점도시로의 목표를 향해 민·관이 함께 상생해 나가는 시점에서 안동·예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로 묶여 있어 분리 시 양 도시의 북부권 신성장 거점도시 변모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생·화합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며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행정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경북도청을 함께 공동 유치한 안동·예천 선거구를 존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동과 예천은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와 함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의 상생 화합 발전을 위해 시·군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안동·예천선거구를 단일화시켰다"라며 "정치적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여·야 잠정 합의안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에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 촉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 온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신도시추진위원회 등 9개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도 기



사회견에 함께 참석해 이번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양 시군 상생발전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 기자회견 후,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주요 쟁점 포인트는 ▲이번 선거구 확정 잠정안은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선거구 조정미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예천이나 울진군 중 분리 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상생발전요소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바, 어느 쪽을 분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 ▲특히, 이미 안동·예천은 지난 2020년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 정치적 통합이 된 지역구라는 점이 확실히 부각됐다.

술직히, 안동·예천은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생발전해 오고 있는 한지붕 두가족과 같은 것인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칭함)에서 지난해 선거구 조정안을 제시할 시 사전 충분한 전수조사와 용역 등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검토해 발표한 것이 분명한 일로 보인다.

하나, 이번에 제시된 잠정조정안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시 나온 얘기처럼 "어떠한 정치권의 유·불리가 작용한 것이기에 이것은 되돌리는게 맞다"는 논리가 나타난 점과

더군다나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편여를 할 수 없으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결단코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도록 돼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분들이 사전 오랜기간동안 충분한 검토후 지난 해 '울진 분리안'을 제시했는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여·야 합의안이라고 하며 새로운 조정안을 올린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며, 자칫하다가는 중앙선관위의 위상만 우스운 꼴을 당하는 일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대목이기에 이미, 언론에 발표해 버린 잠정안에 대한 새로운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이는 역사에 큰 오명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기에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결코 흔들림없이 이번에 제시된 '선거구 확정 잠정안'과 '기존 중앙선관위 제시안'을 면밀히 분석·재검토하여 '중앙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란 위상을 가지고 어느 안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최종 결정, 즉각 중앙선관위 결정안을 발표해 더는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 중앙선관위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근수/기자



설 명절 통영시가 책임진다

통영시,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본격 가동 통영시, 설 연휴대비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8개 분야별 대책 시동

통영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시는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산불·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주민 불편 해소대책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서로 나누는 명절분위기 확산 ▲관광객 불편 해소대책 ▲엄정한 공직·근무기강 확립 등 8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또한, 연휴기간인 2월 9월(금)부터 2월 12일(월)까지는 재난재해, 교통, 도로관리 등 비상대책반을 집중 운영해 비상 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먼저, 연휴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습정체 구간 교통지도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직영 유료주차장(11개소, 894면) 및 관공서·공영주차장(33개소, 2,664면)을 무료 개방한다.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점검반 운영,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을 시행한다.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비상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공급 불편센터,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시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시설도 운영한다.

설 연휴 강추위로 인한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 누수 등에 대비한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운영한다. 또 설맞이 관내 환경정화활동을 집중 실시하면서 연휴기간 쓰레기

불법 배출금지 홍보 등도 추진한다.

서로 나누는 명절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등에 대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운영하지 않지만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며,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 등을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연휴기간 중 관광객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관광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반도 가동된다.

이번 설을 맞아 천여명 통영시장은 "빈틈없는 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우리시민들과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봐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준/기자



울진군 2024년 주민화합 간담회 성황리 마무리

1월 26일~2월 1일까지 진행, 주민들의 큰 호응 얻어



울진군이 지난달 26일 금강송연을 시작으로 1월까지 진행된 10개 읍면 주민화합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3년 읍면 업무 추진 실적 설명,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군정의 주요사안과 앞으로 운영 방향 및 사업 계획을 순번복 군

수가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읍면 건의 사항 및 질의응답을 통한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것을 밝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번복 울진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주민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울진의 현재 상황과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지금 눈앞에 놓인 경제·지방소멸·기후 위기 등을 울진의 변화 기회로 잡아 더 잘 사는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군민 여러분도 관심과 협조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명품 교육도시 청도 건설, 인재 양성에 총력

제24회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제24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회 정관 일

부개정(안)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학력신장 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09년 설립되어 지난해까지 약 2천 명의 학생에게 9억여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매년 지역 우수 인재 대상 장학금 지급과 관내 학교 대상 학력신장 지원사업 등 청도군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사무국 운영과 학력신장 지원사업 중 하나로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하수 이사장은 "지속소멸 위기 극복이 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달려 있음을 동감하고,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청도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미혼모 가정에 사회적기업 온정 전달

미혼모 돕기 착한소비 특별전 성과 사회적기업-대한사회복지회 1:1 매칭. 1,770만원 성금 모금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공헌 특별 판매전을 통한 판매액의 10%를 1일 도내 미혼모·모자 가정 돕기를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엔 전달한 기부금 1,770만 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진행된 '미혼모 및 모자가정 지

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착한소비 온라인 특별전'에 참여한 사회적기업 7곳의 수익금 일부와 영유아 아동 구호 전문단체인 대한사회복지회 1:1 기부금 매칭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는 온라인 특판전을 통해 경북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대중 소비자들에게 홍보·판매해 지역 기업의 판로와 마케팅 지원으로 고객기반을 확

충하기 위해 진행했다. 또, 수익금 일부는 다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미혼모와 아이들을 지원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지난 연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10여 가정에 분유, 이유식, 생필품, 육아용품 등을 지원한다. 이달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기

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경영을 실천하는 경북 사회적기업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젊은 여성과 아이가 줄어들어 지역이 위기인 가운데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지역 기업들이 앞장서는 모습이 귀감이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북도가 착한 기업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윤경희 청송군수,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과 차려 용품을 구입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해

청송군은 설날을 맞아 오는 4일(일)부터 2월 8일(목)까지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행사는 지역 상권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2월 4일 안덕전통시장을 시작으로 2월 8일 진보객주전통시장까지 군 공무원 및 관내 기관, 단체 등 약 600여명이 방문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역경제와 민심을 살필 예정이다. 군은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설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을 위한 물가

지도점검반을 통해 요금 과다인상, 담합행위를 점검하여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방역 및 환경정비를 시행하여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과 차려 용품을 구입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마스(Winy Maas)를 명예자문건축가로 위촉

부산시는 지난 2일 오전 9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MVRDV 건축그룹 대표인 위니마스를 시 명예자문건축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되는 위니마스는 향후 1년간 부산의 건축·도시현안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부산 건축디자인 혁신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니마스 대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재래시장과 아파트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현대 건축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마켓홀'과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자연을 담은 아파트 '벨리'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네덜란드 건축가다. 국내에서는 ▲서울역 고가도로 재생 프로젝트인 '서울로 7017'을 설계하고 ▲광주 폴리 '아이 러브 스트리트'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에 열린 제10

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과 관련한 기초발표와 부산국제건축제에서 'What's Next?'라는 주제로 특별전 및 강연을 선보이며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위니마스 대표의 다양한 경력들이 부산의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에 있어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니마스 명예자문건축가는 "부산은 2003년 처음 방문한 이래 계속 흥미롭게 지켜보는 도시로, 내가 살고 있는 항구도시 로테르담과 여러모로 닮아있다"라며, "부산이 최근 도시 공간 혁신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도시공간 조성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는 뜻깊은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실속 있는 조언을 드리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다"라며, "이번 명예자문건축가 위촉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축과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부산만의 품격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가득한 '글로벌 허브도시'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위니마스와 부산 젊은건축가들과의 대담'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위니마스 대표를 비롯해 부산건축가, 관심 있는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부산 건축도시 혁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태/기자



경산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합동점검

경산지역 전통시장 3개소(경산, 하양, 자인공설시장) 합동점검

경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통시장을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점검했다. 설 명절을 맞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3개소(경산, 하양, 자인공설시장)에 대해 진행한 이번 점검을 통해 소관부서,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자문단, 전통시장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소방, 가스, 전기 시설 등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분야별로 현장을 살폈다. ▲소방시설물 작동 및 비치 여부 ▲전기 분전반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스 누설 점검 및 설비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 관리 하도록 했다. 이강학 경산부시장은 "최근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탁구 꿈나무의 열기로 영양의 추위를 녹인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목)부터 3일(토)까지 3일간 영양군체육회와 포항시체육회탁구단의 후원과 함께 영양중·고등학교에서 영양군 초·중·고 스포츠클럽 탁구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동계훈련은 포항 두오고등학교 및 포항시체육회 여자실업팀이 영양을 방문하여 영양 관내 스포츠클럽 탁구부(일월초, 수비초, 영양중, 수비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탁구 기본기 및 동작 등을 알려주는 재능 기부 활동으로 운영된다. 특히 동계훈련에 참가한 영양군 수비중·고 탁구부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방과후학교 탁구 프로그램(코치 조일호)을 통해 기량을 갈고 닦아, 전교생 40명인 소규모 중·고 병설학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 출전하여 여자부(중등) 및 여자부(고등) 각각 탁구 종목 1위를 차지하는 기량을 펼쳐 큰 주목과 함께 치

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포항시체육회 여자탁구팀 감독(이상한)은 "탁구 재능 기부를 통해 우수한 탁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나아가 탁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재능있는 엘리트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문경시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202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문경시청 산림복지과에 본부를 설치하고 읍·면·동별 소속 직원 4개조를 편성해 순환 근무 체계로 2월 1일부터 5월 3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정기인사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서

양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육아휴직 복직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1월 실시한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 직원 2명을 전격 승진시키는 등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공단에는 전체 1,400여 명의 직원 중 총 265명(19%)의 여성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은 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의 승

진임용 근속기간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정기인사에서 공단은 육아휴직 복직자 2명의 승진인사를 전격 실시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인사팀 담당자는 "공조직의 보수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나름의 파격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육아휴직에서 직장으로 복귀한 직원의 경력단절 예방과 업무 적응을 위해 최대 3주간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공단이 앞장서서 보다 일하기 좋은 직장, 직원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동래구, 2024년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장준용 동래구청장, "어려운 이웃 돕기에 힘쓰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 감사,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혀

부산 동래구는 지난 달 3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지사장 서정익)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도움의 손길 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힘

쓰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쓰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문경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일까지 운영한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발령하며 단계별 대응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금년 2~4월 기온·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예년 봄철과 유사한 수준의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10년, 산림청 발표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은 지난해 산불 발생건수·면적은 596건 4천922ha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 567건 4천3ha보다 각각 5%·25%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발생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170건(29%)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72건(12%), 논·밭두렁 소각 57건(10%), 담뱃불 실화 54건

(9%), 건축물 화재 41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극적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관내 등산로 13개 노선(69.5km) 폐쇄, 입산통제구역(33,763ha)/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3,672ha)을 지정하고, 또 주요 등산로에 산불예방 현수막 게시,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등 게양, 산불예방효과를 강화했다. 산불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읍·면·동별 기간제 근로자로 이루어진 산불감시원 92명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집중감시하고 산림 중요 거점에 위치한 감시초소 2개소와 감시탑 10개소에 중점 배치된 감시원은 구역별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을 비상대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산불감시원/진화대원의 능력향상/전문화를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산불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진화장비 고도화를 위해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확보해 사전대응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상주시와 공동으로 헬기(3400L급)를 임차하여 산불확산 저지를 위한 준비를 마친상황이다. 김선일/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균범 전 전남지사 애도

28대 도지사...국제교류·지방자치 등 전남 발전·혁신 이끌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가와 전남 발전에 헌신한 이균범 전 전남도지사가 지난 1월 31일 별세(향년 90세)함에 따라 영면을 기원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함평 출신인 이균범 전 지사는 경찰 간부후보생 11기로 경찰공무원에 입직한 후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역량을 보였다.

곧은 성품과 높은 덕망을 가진 올바른 공무원의 표상으로서 감사원 감사위원과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제28대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뛰어난 해안과 통찰력으로 전남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록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선

진적 지방자치·권 실현에 앞장서고, 전남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었다.

이후 동신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일구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했으며, 또한 대통령 통일고문으로서 통일 조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향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고인께서 당시 '300만이 한마음 희망에 찬 새 전남'을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뜻을 받들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겠다"며 "영면의 길을 떠나신 이균범 지사님께 온 전남도민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함평군, 올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115억 투입

전남 함평군이 영농환경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15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한다.

함평군은 올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3억, ▲배수개선사업 16억, ▲밭기반 정비사업 23억,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1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1억,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6억,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14억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가뭄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내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착공하고 농민에게 공정률을 끌어 올려 농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우량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2024년 1월 1일기준 땅값 산정합니다

남원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2월 16일까지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는 표준지 4,052필지를 제외한

259,632필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전년 대비 평균 표준지공시가격은 동일하여 이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

지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이용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2024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가져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전년 대비 약 9% 증가

강진군은 지난 1일, 군동면, 신전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개회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은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보육시설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운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어디서든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을 강조했다.

2부 교육에서는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어르신들에게 빈번히 발생되는 낙상사고 등 안전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 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대상자 2,220명을 모집한다.

사업량도 2,035명에서 2,220명으로 185명이 증가해, 약 9%가 늘었다.

또한 군은 4차 산업혁명과 접목되는 스마트 경로당 관리와 주택 소규모 수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사회관계 속에서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뭘? 10만원 쓰면 2만원 돌려준다고?" 나주시, 설맞이 원도심 상점가페이백 이벤트 연다

원도심 중앙로 매장 141곳 이용 시 구매금액 20% 지역화폐로 환급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원도심 상점가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포함된 오는 13일까지 9일 간 원도심 상점가 일원에서 지출금액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Payback·보상환급)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

이 기간 원도심 중앙로, 금빛상점가에 위치한 매장 141곳의 구매 영수증을 교환소에 제출하면 금액 비율에 맞춰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벤트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적용된다.

5만원은 1만원, 10만원은 2만원, 20만원은 4만원, 50만원은 1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예산(1억원)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상품권 교환소는 중앙로 파리바게트



앞 사무실(나주시 중앙로 38-1)과 구오약국(나주로 156-1)에 위치해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명절 연휴 동일하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반드시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환급받은 나주사랑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화장품점, 카페, 미용실, 의류 매장 등 상품권 가맹점 5608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이벤트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소비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권 이용에 나주시 공무원들도 적극 힘을 보탠다.

나주시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에 시

김영안/기자

순천시, 2024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 '종합대상' 수상

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 조성으로 도시공간 혁신 성과 인정

를 박람회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혁신한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에 모여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탐닉하며 광장문화를 이끌었으면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지방위기 시대 미래도시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우수한 아날로그적 정원에 디지털 요소가 더해진 애니메이션·퍼레이드·음악·축제 등 문화라는 옷을 입혀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비롯한 도심 곳곳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상력과 공간을 보는 눈을 키워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짜임새 있는 정책들을 촘촘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실시

업체당 3,000만원 한도, 연 3% 이자액...2년간 지원

진도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연 3%의 이자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기준(재산세, 지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입자(배우자포함), 타 사업으로 이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진도농협 ▲진도군수협 ▲진도군산림조합 ▲진도군새마을금고 등 5개소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차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은 도시 경쟁력 강화, 도시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에 힘쓴 지자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정책, 기술 3개 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 저류지 공간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오천그린광장'과 저류지 제방으로 활용되고 있던 4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잔디를 식재한 '그린아일랜드'

임산부 응원하는 '전북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 에코이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도는 임산부에게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500여 명 대상, 12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로서 신청 이후 에코이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결과 임신부로 확인됐거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

부로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며 한우·유정란·돼지고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공급한다.

지원조건은 임신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지원하며, 이중 20%인 9만6천원(20%)은 자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지만 자부담을 할 경우 초과해 구매할 수 있다.

공급업체는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등 안전성관리 위생조건을 갖추고 공모심사에서 선정된 공급업체가 도내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계획이며, 4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임산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보성군, 보성 산림600 산림분야 작업단 면접심사 실시

기후변화 대응 숲 조성 등 일자리 창출

보성군이 2일 2024년 보성 '산림600'을 이끌어 나갈 산림 분야 작업단 선발을 위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접심사는 보성을 보성강변 배롱나무 가로수길 일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74명의 지원자 중 1차 서류 합격자 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보성군 산림 분야 작업단 선발 인원은 총 64명이다.

산림분야 작업단은 안전 장구(안전모, 안전화)와 작업 도구를 착용한 상태로 체력 검정을 기본으로 여성은 가로수 가지치기, 남성은 기계톱 작동 능력 등 직무 전문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개인별 안전장비 기준, 동력 예초기 작업 시 안전거리, 도로변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



었다.

보성군 관계자는 "면접 심사 전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고 올해는 산림근로자들과 함께 '보성 나무 사랑의 날' 지정 및 주민참여형 보성 '산림600' 사업을 병행 추진해 읍면 생활권 내 주변 숲 정비와 마을 전통 숲 발굴 및 조성 등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목포시,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위해 산업보건의 위촉

전남산업보건연구원 박요섭 원장 위촉...현업근로자 의학적 조치 및 자문

목포시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전남산업보건연구원 박요섭 원장을 산업보건의로 선임하고 지난 1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산업보건의 위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월 산업보건의를 선임했다.

박요섭 산업보건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시 소속 현업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건강 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및 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목포시는 지난해 안전관리자와 보건



관리자 선임에 이어 산업보건의까지 위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서 소속 종사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중배/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구례지역자활센터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준비하여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 각 지역 자활센터 생산품 홍보에 나섰다며 구례지역자활센터의 생산품도 웹 자료홍보물에 게시되어 지역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판매상품은 구례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참여자들이 직접생산하고 가공한 상품들로 새싹인삼, 양갱, 비트조청, 비트시럽 등이 있다.

앞, 줄까지 버리는 것 없이 다 먹을 수 있으며 사포닌 함량이 높은 새싹인삼은 50뿌리(30,000원), 100뿌리(50,000원) 두 종류로 판매중이다.

옛기름과 쌀을 섞어서 이틀이 되어야 나오는 정성스런 조청은 500ml 1병 18,000원, 꽃차와 비트조청을 하나로

담아낸 꽃담세트는 38,000원에 판매중이며 양갱은 비트,썩,팔,호박등으로 다양하게 맛내고 단맛을 최대한 줄여 건강한 간식을 지향하며 만들어내었다.

9입(15,000),12입(20,000) 포장 가능하며 부담없는 선물로 호응을 받고 있다.

판매상품은 모두 구례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곳간이자연"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며, 매장은 봉동길 4(구례읍 다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선물모든 생산품은 2월 8일까지 10세트 구매시 1개를 더 드리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구례지역자활센터는 현재 8개 사업단(GateWay사업단, 곳간이자연사업단, 카페드레사업단, 무지개도우미사업단, 사랑찬들사업단, 손누리사업단, 지리산농부사업단, 행복환경사업단)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어, 나아가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김성현/기자



완도군, '소의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타당성 등 평가, 고금 넓도·금일 다량도 선정

완도군에서는 고금 넓도, 금일 다량도를 대상으로 각각 선박 1척을 투입하여 '소의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의 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정부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으며, 여객선이 미 기항하는 도서에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형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완도군에서는 고금 넓도와 다량도가 선정됐다.

이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 인건비와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군과 고금 넓도, 금일 다량도의 마을 공동체는 7개월간 협력하여 운항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고금 넓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2회 선박 운항을 시작했다.

금일 다량도는 2월 말에 선박을 운항

할 예정이다.

선박 운영 및 운항은 각 마을 공동체에서 맡는다.

그동안 고금 넓도와 금일 다량도에는 여객선이 없어 주민들이 사선을 이용해 육지를 다녀야 했으나 사업 선정으로 해상 교통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금 넓도, 금일 다량도 마을 공동체에서는 "여객선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운송 수단이 생겨서 주민들이 기쁘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해상 교통권 확보와 안전한 운항을 위해 사업에 열심히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상 여객선이 미 기항하는 도서가 많은데 항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영울/기자

해남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249억 원 확보

송지 영평 등 신규 3개지구 포함 19개지구 사업 추진

해남군은 올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총 19개 지구에 대해 국도비 249억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 계속사업은 16개 지구이며, 2024년 신규사업은 3개 지구이다.

신규사업은 송지 영평지구 하수관로 6.2km를 개설하고, 103가구에 대해 배수설비를 시설한다. 또한 해남읍 외 4개소 노후하수관로 보수 12.1km와 현산 구산, 황산 정의, 옥천 마고지구에는 1일 120m³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10.91km, 506가구 배수설비에 대한 사업이 시행된다.

신규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남읍 신안리 등과 문내 난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도 현산 신방, 북평 서흥, 북평 와룡 등 3건 준공 예정으로 총 10개 마을, 902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이 생활 환경 개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은 마을이 산재해 있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이 다년간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갑문/기자

제주시,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접수, 1,300명 선정

제주시는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와 두고 있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신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자부담 20%(9만 6천 원)를 포함해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신부는 향후 선정되는 공급업체 인터넷몰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 꾸러미 제품을 선택하고, 자부담분(주문 금액의 20%)을 결제하면 거주지로 직접 배송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소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1,300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이 빠른 산모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임산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권/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부·지자체·조직위 삼박자 조화... IOC와 체육회의 협력 잊지 않을 것”

강원 2024 아시아 최초, 역대 최대규모 참여, 관람객 50만 명 흥행 대박



지난 1월 19일 개막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월 1일 7시 30분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강원 2024는 강릉, 평창, 정선, 횡성 4개 시군에서 개최됐으며, 아시아 최초 동계청소년 올림픽이자, 역대 동계청소년 올림픽 중 최대 규모로 전 세계 78개국 선수 1,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목표 관람객 25만 명을 훌쩍 넘긴 50만 명을 기록했다.

강원 2024 개막을 사흘 앞두고 노로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개막 일 이후 강릉 지역의 40cm가 넘는 대설과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기록하는 한파로 인해 대회 성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자원봉사자, 군·경·소방 등이 함께 신속하게 대처하고, IOC,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어 갔다.

김 지사는 “먼저, 밤낮없이 폭설과 혹

한의 현장에서 함께 해준 조직위, 자원봉사자, 군·소방·경찰 등 7,000여명의 지원인력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대회 초반 여러 악재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성공개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질병청, 식약처, 국방부 등 신속하게 전면 대응을 함께 해준 덕에 안전한 올림픽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대회준비부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대회기간 중 개최도시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주신 IOC 위원들과 대한체육회의 협력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강원 2024의 올림픽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100% 활용한 올림픽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을 이어 갔다.

김 지사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유산 활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도내 동계올림픽 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세계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올림픽 유산 활용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강원2024 잠시 후 있을 폐막식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된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흥행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을 계획”임을 이야기하며, 2024 강원 다함께 빛났고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Shine together, remember Gangwon” 메시지를 전했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설 명절 귀성객 맞이 철저히” 당부

2월 직원월례모임...주요업무계획 검토, 정부예산 확보 등도 주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2월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연휴의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아산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 주변 쓰레기 및 불법현수막 등 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정비해달라”며

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2024년은 민선 8기의 세 번째 해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소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은 계획한 주요 업무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시 공약사업 및 역점 시책과 연계성을 발굴해, 공모사업을 제안하거나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47회 임시회를 언급하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게 될 텐데, 사전에 예상질문 및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참여 청년 모집

도, 생활창업·기술창업분야, 예비창업자부터 기창업자까지 맞춤형 지원

39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는 △생활창업 △기술창업 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특화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창업 분야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기본교육을 개방형(오픈형)으로 운영하며, 교육 이수자 중 사업역량을 평가해 전문가 자문(컨설팅), 멘토링, 500만원의 창업지원금과 최대

5000만원의 특화보증을 제공한다.

창업 7년 이내 기 창업자에게는 사업확장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1500만원의 창업지원금과 최대 2억원의 특화보증을 지원한다.

기술창업분야는 창업교육, 전문가 자문, 교류(네트워킹),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며, 최대 2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영조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원

하는 창업 분야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활창업, 기술창업으로 창업분야를 구분했다”며 “각 분야별 특화기관을 통해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청년 창업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2024년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태백시는 2024년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태백 이미지를 심어주고, 생활 쓰레기로 인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태백시는 설 연휴 시작 전인 2월 8일까지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등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돼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방지를 위해 대형유통시설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기획상품의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 지역 관리를 위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도로변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중점 실시하며, 설 연휴 기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쓰레기대책 상황반과 이동처리반을 설치·운영해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겠다”며, “생활 쓰레기를 줄여 쾌적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충북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 전문의식 함양 및 산업재해 대응 역량 강화

충청북도는 2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서 2024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북도는 ‘2024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라 현업업무 대상 17개소의 부서장 또는 팀장 등 77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운

영하고 있다.

교육주제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며,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안전보건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유해위험기계기구 점검, 유해위험물질 취급방법 등에 대해 다뤘다.

또한,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와 예방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충북도 신형근 재난안전실장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직접적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안전보건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점검을 생활화해 충북도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미래의 유도 국가대표들 영양군 집결!!!

‘영양군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 4억원의 경제효과 달성’
 영양군 유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 2024년 영양군 첫 전지훈련 성공리 마무리’
 오도창 영양군수,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한 어린 선수들의 올 한해 좋은 성적 내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는 덕담 남겨

경북 영양군은 지난 달 5일부터 실시한 유도 전지훈련을 무사히 종료했다. ‘24년의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은 미래의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품은 아이들의 당찬 포부와 함께 시작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와 추위 속에서도 체육관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훈련은 전국 유도부의 합동훈련으로 진행되었으며, 친선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려 각종 국내·외 대회를 대비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동절기 전지훈련은 전국 55개의 학교에서 836명의 선수 및 코칭스텝이 참여하였고 이는 4억 원의 지역 경제효과를 일으켰다. 해마다 참가 학

교가 늘어나고 있는 영양군 유도 전지훈련은 주최 측인 영양군 체육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영양을 찾는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선수들을 “영양군은 전지훈련시설이 훌륭할 뿐 아니라 선수단의 활동에 편의를 위한 협력과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추운 날씨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번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기쁘다.”라며 “이번 전지훈련이 어린 선수들에게 한 해 좋은 성적을 낼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뮤지컬을 관람하며 음악적 감각을 키워요!

새벗유치원은 지난 1일(목), 3층 체육실에서 유아 117명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관람했다. 뮤지컬 ‘구둣방 할아버지와 요정’ 관람을 통해 다양한 음악과 대사를 들으며 새로운 단어와 표현 등을 듣고 익히면서 언어 발달과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예술 형식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구둣방 할아버지와 요정’ 뮤지컬의 줄거리는 구둣방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고 일어나자 누군가 멋진 구두를 만들어놓았다고 한 신사가 그 구두를 사가면서 시작된다. 구두를 판 돈으로 다시 가족을 사놓고 잠들자 또 새로운 구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늦은 밤 구둣방을 살펴보고는 요정이 구두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요정들을 위해 할아버지는 새 옷과 구두를 만들어주자 더 이상 요정들은 구둣방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둣방에는 손님이 아주 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3세 000은 “구둣방에 나타난 요정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5세 000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요정 덕분에 구두를 많이 팔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경 원장은 “유아들이 뮤지컬 관람을 통해 음악, 언어, 감정,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아들이 이러한 예술적 경험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일/기자



안동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회 지원

2월 26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권기창 안동시장,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안동시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

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울릉도 눈 축제 눈썰매장 임시 개장

눈축제 눈썰매장 임시 개장 및 본행사 프로그램 소개

울릉군축제위원회는 ‘2024년 울릉도 눈축제’에 앞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면 나리분지에서 눈썰매장을 임시로 개장했다. 본 눈썰매장은 울릉도의 천연 눈을 활용한 190m 길이의 슬로프로 구성되어 행사장을 찾는 이들에게 나리분지의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울릉도 눈 축제만의 짜릿함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본 행사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일대에서 개최된다. ‘가족.연인과 함께 하는 설[雪]렘가득한 눈 체험’을 주제로 진행되는 울릉도 눈 축제는 울릉의 눈과 겨울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전시행사, 개막행사, 부대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행사에서는 ‘서울매달리 위일청’, ‘해바라기 밴드’, 울릉도 홍보대사 ‘정광태’, ‘백봉기’를 비롯한 출연진들의 신나는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또 튜브 눈썰매 타기, 눈 스키 체험, 겨울놀이 체험(연날리기, 제기차기), 설피신고 달리기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도 대형 열음조각 전시와 캐릭터 조형물 전시 등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으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먹거리장터와 플라마켓, 울릉도 특산물 고로쇠 홍보관도 열릴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올해 울릉도 눈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울릉도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예년보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방문해 울릉도를 맘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재/기자



확 달라진 주민과의 값진 대화 "2024 서초구 소통의 장" 열어

1월22일부터 2월2일까지 총 4회, 주민대표 400여명과 함께한
 “갑진년, 주민과의 값진 대화” 2024 소통의 장 열어

서초4동 길마중길 용허리근린공원에 황토길 조성이 완료됐고, 길과 이어지는 서초1교에는 휴먼지 달이기도 설치되어 주민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서초약수터, 우면산 삼지공원 CCTV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4월부터 설치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초, 반포·잠원, 방배, 양재·내곡 4개 권역에서 열린 “갑진년 주민과의 값진 대화” 2024 소통의 장 현장에서 동장들이 주민 민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24 소통의 장’을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속 시원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권역별로 4회에 걸쳐 대표 주민센터에서 주민 각 100여명씩 총 400여명을 초대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 이야기’ 코너를 신설했다. 그간 ‘2023 소통의 장’, ‘전성수다’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1년간 꼼꼼히 챙겨 그 성과를 알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도 자세히 알려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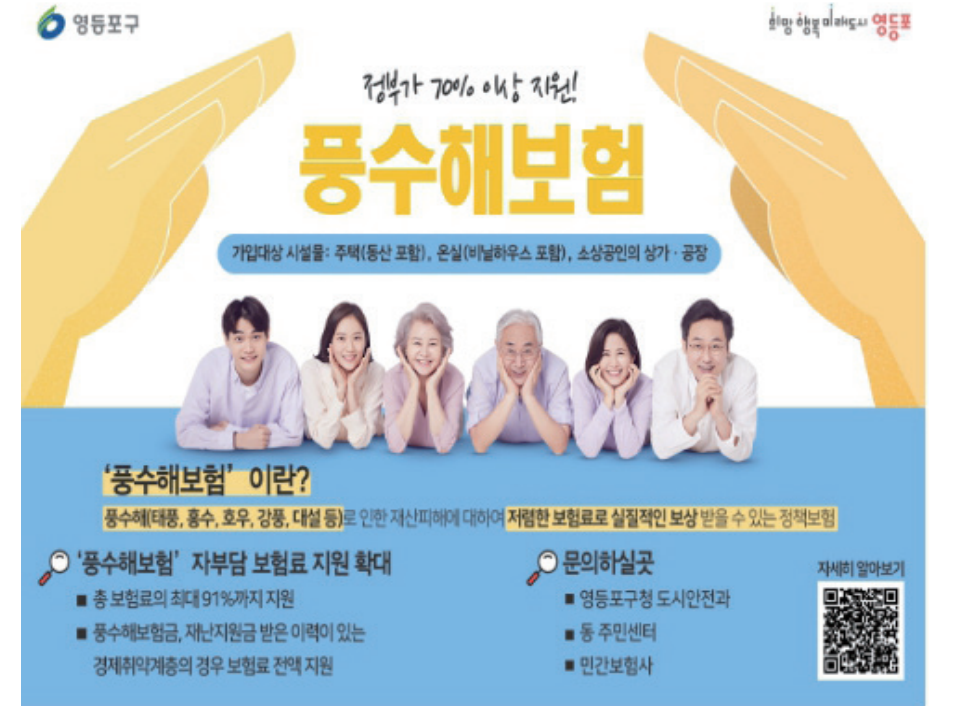
* ‘전성수다’는 매월 1, 3주 수요일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사업이다. 한 주민은 “지난해 소통의 장에서 논의했던 사항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궁금증이 풀렸고, 올해 우리동 특화사업도 자세하게 설명해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각 동별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황토길 조성 ▲공원 시설개선 ▲경사로 열선 설치 및 이면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침수방지 하수관로 준설 등 생활불편 해소에서 안전 강화까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는 서초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구는 주기적인 검토보고회를 통해 주민 희망사업 및 건의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숙원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상황을 주민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서초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의견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흥수/기자

풍수해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영등포구, 자부담 보험료 지원 확대

자부담률 대폭 낮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준 70%에서 91%까지 확대

영등포구가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촘촘한 보험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겨울철 대설과 곧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 장마, 태풍 등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으로 인해 자칫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주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먼저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대폭 낮춘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기존 70%에서 91%까지 확대하고, 주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률은 30%에서 9%로 내렸다. 풍수해보험금,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부담 보험료까지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자나 독거 어르신을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 통장,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풍수해 보험을 안내한다. 서류 작성 등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통장이 직접 가입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설명하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상가·공장),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에 방문하거나 각 보험사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라며 “주민들이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분담 비율을 내리고, 보장내용은 확대했으며,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강남까지 18분! 부천시, GTX로 5중 역세권 시대 연다

부천종합운동장 5중·대장역 4중 역세권 결정...강남 접근성 2.5배 개선 기대

부천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4개 노선(B·D·E·F)이 들어선다.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GTX 전체 노선 6개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이로써 부천시는 인천과 경기 전역, 신설 노선 연장 시 강원과 충청지역까지 철도망이 연결된 수도권 교통 핵심 요충지로 거듭난다.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단축돼 시민의 삶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총총한 교통망 구축을 토대로 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도시 미래 비전과 성장의 청사진을 그린다.

위 발표에 따르면 GTX-B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을 통과한다. 해당 역으로 신설 노선인 GTX-D·F가, 부천 대장역으로는 GTX-D·E 노선이 지난다. 이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은 5중 역세권(7호선, 서해선, GTX-B·D·F), 대장역은 4중 역세권(GTX-D·y분기·E, 대장-홍대선)이 된다.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는 GTX-B는 인천대입구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지자체와 긍정적으로 조율을 마치면 출퇴근까지 직결된다. 또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14분 내 진입 가능해, 기존 약 40분 소요되던 시간을 26분가량 단축한다.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이다.

GTX-D는 부천 대장을 기점으로 더블Y자 형태로 노선이 만나며, 부천종합운동장역-강남을 거쳐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한다. 특히 강남역까지 이동시간이 18분으로 줄어 강남 접근성을 기존의 2.5배가량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GTX-F는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대곡-의정부-덕소-수원-시흥 등 수도권 외곽을 순환한다. 대장을 지나는 GTX-E는 인천공항과 상암 DMC-구리-덕소를 잇는다. D·E·F 노선 모두 오는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부천시는 대장역에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병합하는 노선, GTX-B를 비롯한 광역급행철도 4개 노선, 지하철 1·7호선 및 서해선 등 총 9개 철도 노선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



철도망을 비롯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서창-김포 구간 지하 고속도로 등 도로망 구축 사업도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해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갖출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러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고질적인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어디서나 서울로 20분 이내에 진입 가능한 서부권 교통요충지로 거듭난다.

부천시는 이 같은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중장기 계획에도 돌입한다. 우선 5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15.7만m2 부지에 차세대 문화·산업·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최근 마련한 중장기 개발구상안에 ▲'문화도시 부천'의 인프라와 국가전략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 유치 ▲4세대 마이스(MICE) 산업 공간 마련 ▲부천 아래 나 건립 ▲첨단기술 활용 체육 공간 조

성 ▲지하 교통 환승 체계 연계한 판매 시설 등이 담겼다. 부천 대장에 들어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생태계로 조성할 방침이다.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계열사 7곳이 모여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만들고, 이를 앵커기업으로 유망 기업을 모아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이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GTX 노선 발표는 끊임없는 시의 노력과 시민의 염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속도 혁신과 문화·첨단 산업·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공간 혁신을 융합해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 청년 스마트팜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도, 1일 청년·사업 관계자 대상 스마트팜 사업설명회 개최

충남도는 1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년 스마트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청년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혜택을 제대로 알리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청년농과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선 올해 변경된 청년 스마트농업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으며, 사업 혜택 활용 요령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도는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 장벽을 낮춰 줄 금융지원 부문을 상세히 설명했다.

스마트팜 청년농은 오는 3월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최대 2억 원까지 자립지원 대출이 가능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 무담보 보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스마트팜 경영 비용 대출에 따른 이자를 100% 무이자로 전액 보전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장 10년 이내로 100% 전액 보증 지원한다.

또 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수준 높은 스마트팜 시공협동조합과 경영 컨설턴트의 협조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영농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한다.

앞으로 도는 스마트팜 지원제도 안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해설서'를 전자책 형태로 게재하고 꾸준히 갱신해 최신 정보를 제공, 청년농 유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인동 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청년이 농업·농촌으



로 들어오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도는 그동안 청년 스마트팜 제도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영농현장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짜임새 있는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청년농이 도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청년 스마트팜 신속 및 리모델링 4개 사업 등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약 1조 8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드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www.yyg.go.kr

용인특례시, 미국 윌리엄스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

반도체·IT 등 미래산업 선도 공통점 바탕으로 소통 협력키로...향후 협약도

용인특례시는 2일 미국에서 반도체와 IT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빌 그래벨 윌리엄스 카운티장, 브랜트 라이델 테일러시 시장 등과 만나 의향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시(City)보다 큰 행정구역이며,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 용인특례시 자매도시인 미국 서부 플러덴시는 오렌지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스 카운티의 면적은 2939km², 인구는 약 65만명이다. 매월 4000여명씩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텍사스주에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삼성전자가 22조원(170억 달러)을 투자해 약 150만 평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하는 곳인 테일러시는 윌리엄스 카운티에 속해 있다. 윌리엄스 카운티에는 조지타운시, 테일러시 등 12개의 시가 있다.

우호 교류 의향서는 '양 도시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주민 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경제·문화관광·교육·민간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도시는 이 같은 협력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우호 교류 관련 협약을 맺기로 했다.

두 도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데다 인구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닮은 만큼 앞으로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빌 그래벨 윌리엄스 카운티장 등에게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윌리엄스 카운티와 우호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용인 이동·남사를 226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6개를 건설하는 국가산업단지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반도체 단일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곳에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도 입주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하는데 2027년 봄 첫번째 팹이 가동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41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시작한 용인의 삼성전자 기캠퍼스는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 연구단지로서 거듭날 것이며, 이곳에는 20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스카운티가 적극 협력하면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빌 그래벨 윌리엄스 카운티장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 용인특례시와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테일러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조성될 예정인만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호 교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벨 윌리엄스 카운티장은 또 "용인과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싶

다"고 했다.

윌리엄스 카운티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센터 313'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결정이 잇따르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방문에 이어 윌리엄스카운티 주요 도시인 테일러시를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테일러시에 약 22조원(170억 달러)을 투자해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칩을 제조할 팹(Fab)을 신설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물론 우주항공이나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과 클린테크, 그린에너지, 생명공학 등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해있다. Dell Technologies, 테슬라, 애플, 한양이엔지 등 다수의 기업이 있다.

김범상/기자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비바위, 남이포,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산계곡, 침백공원, 촉백수림, 외씨바시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박물관보물고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계수석야생화전시관



서울시, 시민주도 '제로웨이스트'... 2024 녹색서울실천사업 참여단체 모집

급증하는 1회용품 쓰레기 문제 대응이 집중 과제, 비영리민간단체·법인·사회적협동조합 협력

대학 축제에서 즐기는 맛있는 먹거리!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부족한 분리수거 시설로 인해 캠퍼스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했다. 서울대, 성신여대, 동국대는 2023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구와 함께 즐기는 미니멀웨이스트 친환경축제(대자연)'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했고, 그 결과 일회용기 22,251개를 감소시켰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생활 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24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집중주제는 급증하는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는 '시민협력형 1회용품 없는(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이다.

상세 추진 분야는 ▲자원순환 ▲기후대기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 등 지정사업 5개 분야와 자유 주제인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

분야별 사업을 살펴보면 ▲담배꽂초

제로 버리기 캠페인(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 도시녹화 활동(기후대기) ▲생태계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시민실천 활동(생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생활환경만들기(환경보건) ▲서울형 환경교육 교구개발 및 보급(환경교육) 등 총 14개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 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로 진행된다.

선정된 단체 및 기관은 11월까지 총 9개월간 활동하며 사업별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지정사업 중 정책 연관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집중 주제'에는 지원금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4억 원이다.

심사는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제로서울'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지난해 우수사업 발표와 모범사례 공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수행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의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또 긍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 보고서 등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일상에서도 기후 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실천하는 독창적인 환경보전 실천사업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개시!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부산시는 내일(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이들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2018.12.31. 이전 출생자)으로, 문화누리카드에는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연 13만 원의 문화활동비가 충전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공익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2만 원이 인상된 13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시는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된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수혜 인원은 23만 명으로 지난해 23만7천 명보다 감소했다.

발급 신청은 내일(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 누리집, 문화누리 고객센터,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려면, 오는 11월 29일까지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은 개별로 진행되나,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대표자가 단체로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김희태/기자

김종원 총감독, 2024 시흥시 주요 축제 총괄한다



시흥시는 올해 시의 주요 축제인 '시흥갯골축제' 및 '시흥거북섬축제'의 총감독으로 김종원 감독을 영입해 2월 1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총감독으로 위촉된 김종원 감독은 관악강감찬축제, 양구배곧축제, 보성낙차다향대축제 등 지역축제를 총괄해

축제를 전문가다. 김종원 총감독은 다양한 축제를 총괄한 경험으로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시흥갯골축제를 비롯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한 시흥거북섬 사계절축제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김 총감독의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총감독은 ▲시흥시 주요축제 책임 기획 및 총괄운영 ▲시흥지역특화관광축제 컨설팅 ▲축제연출 및 현장 지휘 등의 역할을 맡게 되고, 축제사무국 및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축제 운영에 힘을 모으게 된다.

김종원 총감독은 "시흥시가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축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축제전문가를 총감독으로 모셔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 올리게 됐다"라며 "총감독과 함께 시민이 사랑하는 축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시흥갯골축제'는 2024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으며 오는 9월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시흥거북섬해양축제'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사계절 축제로 변신해 봄·여름·가을·겨울 각각 색다른 주제로 시흥거북섬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권동일/기자



제31회 태백산 눈축제, 시민 참여로 더 풍성한 축제 운영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매년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지난 26일 개최되어 10일간의 축제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눈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시민 눈조각 경연대회(시민 참여 콘테스트)가 장성중앙시장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태백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의 축제 분위기 조성과 태백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조성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장성중앙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시민 눈조각 경연대회는 총 5개 팀(장성동연이팀, 장성동 탄이팀, 통리 자율방범대, 석공노조, 현안대책위원회)이 참가

하여 각 팀의 특색을 살린 눈조각을 뽐낼 예정이다.

시민 눈조각 경연대회는 2월 2일까지 제작 완료 후 2월 4일까지 SNS로 인기투표를 진행하여 인기팀 1팀을 선발·시상하며, 시상식은 오는 2월 4일 오후 3시에 행사장 일원에서 예정되어 있다.

태백산 눈축제 관계자는 "태백시 곳곳에 제31회 태백산 눈축제를 방문하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기실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 태백산 눈축제와 더불어 황지연못, 장성중앙시장, 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운영동물 등 태백시를 맛있게 즐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대전-샤프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문화 교류 확대한다

이상우 시장, 2.2.~2.5. 자매도시 샤프로시 방문... 제74회 눈축제 개막식 참가

이상우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대표단은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샤프로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제74회 눈축제를 개최하는 샤프로시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8월 대전 0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아키히로 가츠히로 시장이 0시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차기년도 샤프로 눈축제 및 국제예술제에 이상우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대표단의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출장은 대전시립무용단의 현지 공연으로 샤프로 시민들에게 자매도시 대전과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

리고, 동행 경제사절단과 함께 도시 경제 분야 교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대전시가 추구하는 자매도시 간 실리 교류라는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 시장은 2일 첫 일정으로 아키히로 가츠히로 샤프로 시장과 면담을 갖고 경제·문화교류 강화를 위한 환담을 나눈 후 샤프로팩토리 공연장에서 자리를 옮겨 대전시립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

3일에는 샤프로 올림픽 박물관, 샤프로 국제예술제 등 도심 속 눈축제 연계 자원을 시찰하고, 이상래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눈축제 개막 전야 리셉션에

참석해 국제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4일에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제74회 샤프로 눈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후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국제 설상조각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지역예술인들을 격려한다.

이번 눈축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만큼, 이 시장은 축제장 구성과 흥행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0시 축제에 접목할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보리베쓰시를 방문해 온천산업 문화관광 시설들을 시찰하고 유성온천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우 대전시장은 "경제·문화사절단 상호 방문 추진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인 교류를 한층 확대하고,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대전 0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구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대전시와 샤프로시는 자매결연 이후 최초로 상호 대표 축제에 시장단이 방문하고, 대전시와 샤프로시 시민들이 상대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 공공시설 임장료·관광료 등을 할인해 주는 민간교류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원호/기자

원주만두축제, '202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2023 원주 만두축제"가 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음식문화축제 부문 대상 수상을 했다.

2024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발굴·시상하며,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JTBC가 후원한다.

6. 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원주김치만두와 대한민국 최초의 칼만두까지 원주시 대표

음식 "만두"를 소재로 작년 10월 전국 최초 만두축제를 2일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원주 만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만두 주제관을 비롯해 만두 판매장, 공연 무대, 체험장 등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만두 빨리먹기 대회, 만두명인의 쿠킹쇼, 만두 만들기 체험 등이 색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구도심과 가깝고 전통시장이 밀집된 문화의 거리에 개최하여 관광객들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및 도래미시장 등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함으로써 먹거리와 쇼핑을 동시에 즐기므로써



10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는 축제 장소를 중앙동 전통시장 및 강원감영 일원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현장 점검 철저”지시

관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야탑동 임시종합터미널에 난방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특히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설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에서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2.8~2.12. 5일간) 중, 임시터미널에 난방시설 5대를 설치하고 보조 의자 30개 비치해 운영할 예정

이다. 또한 기존 6명의 안내요원을 7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물가조사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축산물 판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개장한 모란 제2공영주차장이 예산을 절감한 대폭적 사례로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규모는 적절한지 철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

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어떤 것이고, 중대재해시 경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평상시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지 등을 알려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나 교육의 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광진구, 설 종합대책 마련

7일~13일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교통·안전·의료 등 8대 분야 중점 추진

광진구가 ‘2024년 설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구민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7일부터 13일까지를 설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연휴 동안 각종 사고 예방과 구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통, 제설·한파, 안전·화재, 생활불편 해소, 물가안정, 의료·보건, 훈훈한 명절 보내기, 공직기강 확립 총 8개 분야와 1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교통대책반, 제설대책반, 공원녹지대책반, 생활대책반, 의료대책반으로 편성해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먼저, 구민의 원활한 귀성·귀경을 위해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공용주차장 5곳을 무료로 개방하여 방문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승차 거부 등 심야 택시 법규 위반 사항을 특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단속하는 등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연휴 기간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산불 등 화재 발생 즉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구는 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 힘을 계획이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내 명절 성수품 가격 조사 및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 점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청소상황반을 운영해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청소 민원에 신속 대응한다.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기간도 조정한다. 9일부터 10일까지 배출이 금지되며, 11일부터 정상 배출 가능하다.

광진구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안내상황실을 운영해 건국대학교병원과 해민병원에서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한다.

이 밖에, 복지 대상 주민과 기관에 위문금 전달, 긴급 지원대책반 운영, 독거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 등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구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구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부전마켓타운 방문... 설 명절 물가 점검 나서

2월 2일 11:00 부전마켓타운에서 상인,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설 명절 민생 현장 챙겨



사가 마무리된 부전역 공영주차장도 방문했다. 주차시설이 확충되면서 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가 늘고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주요 시설물 화재 안전 관리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3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부터 부전역 공영주차장의 1개 층 증축을 추진해 올해 1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증축공사 완료로 주차면은 230면에서 333면으로 103면이 증대돼 부전마켓타운 인근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시는 물가안정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은 설 명절 연휴에도 부산 발전을 위해 근무하는 현업근로자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희태/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일) 오전 11시 부전마켓타운을 찾아 시장 상인,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겼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심리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부전마켓타운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과일, 전 등을 사면서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으며, 특히 시가 마련한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등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급등이 우려되자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과일 등 성수품 물량 공급을 평시 대비 확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부전마켓타운 내에 있는 한 차

한가격업소를 방문해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착한가격으로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오늘(2일)부터 시작하는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환급부스도 둘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부전마켓타운 상인회장과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을 함께 모색했으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설 명절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올해 1월 말 증축 공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유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영화 '밥 말리: 원 러브', 전설의 아티스트 '밥 말리'의 귀환! 3월 13일 개봉 확정!

혁명적인 음악으로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시대의 아이콘 '밥 말리'의 전설적인 무대와 나아가 세상을 바꾼 그의 뜨거운 삶을 그린 감동 음악 영화 '밥 말리: 원 러브'가 3월 13일(수) 개봉을 확정 지었다. [수입/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 감독: 레이날도 마커스 그린 | 출연: 킹슬리 벤-어디어, 라사나 린치, 제임스 노튼]

영화 '밥 말리: 원 러브'는 '밥 말리'가 전한 사랑과 평화, 화합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스크린에 펼쳐질 레게 음악으로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상을 바꾼 시대의 아이콘 '밥 말리'의 삶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영화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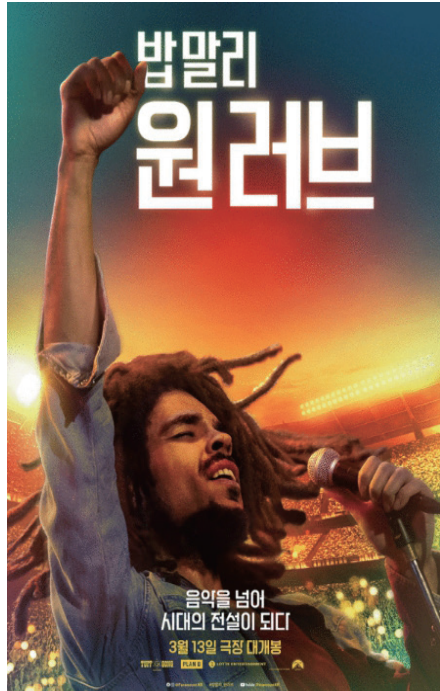
특히 '밥 말리: 원 러브'는 공연을 앞두고 충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 성공적으로 마친 '스마일 자메

이카 공연'의 비하인드는 물론 그 이후의 삶까지 '밥 말리'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담아내며 궁금증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2월 6일 생일을 앞두고 있는 그를 향한 대한민국의 관심 또한 치솟고 있다.

2월 3일(토) 부산에서 '밥 말리'의 79번째 생일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국내 레계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세상을 떠난 지 4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며 영화를 기다리는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봉 소식을 전하며 전설의 아이콘 '밥 말리'의 귀환을 알린 영화 '밥 말리: 원 러브'는 오는 3월 13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밤에 피는 꽃' 이하늬, 이종원 품에 안긴 사연은? 두 사람 사이에 퍼지는 묘한 기류



'밤에 피는 꽃' 이하늬와 이종원이 안방극장에 가슴 두근대는 설렘을 안긴다.

2일(오늘)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기획 남궁성우 / 제작 김정미 /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극본 이샘, 정명인) 7회에서는 조여화(이하늬 분)와 박수호(이종원 분)의 설레는 만남이 그려진다.

본방송에 앞서 오늘 공개된 스틸 속 수호 품에 안겨 있는 여화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입꼬리를 끌어올린다.

얼떨결에 수호에게 안기게 된 여화는 어쩔 줄 몰라하며 어색함을 감추지 못한다. 묘한 기류가 형성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수호는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로부터 여화를 지키려 쓰게치마로 찔싸게 얼굴을 가린다.

수호의 돌발 행동은 보는 이들의 설렘을 자극하고,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사내로부터 관계를 오해받으며 흥미진진함을 더한다. 만났다 하면 으르렁대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 변화가 생길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렇듯 여화와 수호 앞에 동공 지진을 유발하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극적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어디로 될지 모르는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본방송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밤에 피는 꽃' 제작진은 "여화와 수호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극 서사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이다. 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변화무쌍한 스토리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 7회는 2일(오늘)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미스트롯3' TOP7 박성온, 정식 가수로 첫발 내디딘다! 신곡 '살리고' 8일 발매

'미스트롯3' TOP7 박성온이 첫 정식 음원을 발매한다.

박성온은 오는 8일 오후 6시 첫 싱글 앨범 '살리고'를 발매하며 가수로서의 첫발을 내디딘다.

'살리고'는 신나는 댄스와 국악이 만난 하이브리드 트로트 곡으로, 세상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한다.

특히 전주부터 신명 나는 태평소가 흥을 살리고, 사물놀이의 함성 그리고 박성온의 보컬이 시작되는 순간 리스너들의 귀를 자극하며 기분을 살려준다.

지난 1일 비스타컴퍼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살리고'의 첫 번째 티저가 공개됐다.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박성온은 마치 이소룡을 떠오르게 하는 비주얼로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따뜻한 표정과 함께 라디오를 켜 박성온은 '살리고' 전주가 나오자 몸을 들썩이며 흥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박성온은 가수로 변신해 춤을 추고, 스튜디오 촬영에 임하는 등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



박성온은 TV CHOSUN '미스트롯 2-새로운 전설의 시작'(이하 '미스트롯 2')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어 TOP7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 로또' 등에 출연하며 감동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고, 현재는 '미스트롯3' TOP7 콘서트를 진행하며 전국 각지의 팬들과 만나고 있다.

또한 박성온은 팬클럽과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박성온의 첫 싱글 앨범 '살리고'는 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최만식/기자

'닥터슬럼프' 박신혜X박형식, 웃프고 짝한 취중의 눈물 포옹, '그날 밤'의 후유증 예고!

'닥터슬럼프' 박신혜, 박형식이 만취 흑역사와 마주한다.

'닥터슬럼프'(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하이디움스튜디오) 측은 3회 방송을 앞둔 2일, 남하늘(박신혜 분)과 여정우(박형식 분)의 취중진심이 오간 '그날 밤' 이후를 공개했다. 술에 취해 눈물의 포옹을 나누던 이들의 달라진 분위기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닥터슬럼프'가 또 하나의 인생 로코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번아웃에 걸린 마취과 의사 남하늘과 슬럼프에 빠진 성형외과 의사 여정우의 '망한 인생' 심폐 소생기는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단 2회 만에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인생 최악이자 세상의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된 남하늘과 여정우는 그동안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았다. 술기운 때문인지 약해진 마음 때문인지, 함께 안고 울던 두 사람의 모습이 웃프고 짝했다.

그런 가운데 남하늘, 여정우가 '그날 밤' 후유증에 시달린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조우한 이들의 어색한 반응과 멀쩡이 떨어져 선 거리감이 눈길을 끈다.

세상 둘도 없는 절친 바이브는 불과 하룻밤 만에 리셋, 마치 남인 양 돌아서는 모습에서 '그날 밤'에 대한 후회와 민망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특히 큰 트럭 뒤에 몸을 숨긴 남하늘과 그를 보고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여정우가 뜻밖의 대치(?)를 벌이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또 다른 사진에서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약속한다. 앞선 예고편에서 남하늘이 여정우에게 "술도 조심하고 서로 당치도 말자..."라고 당부한 바, 역대급 흑역사를 생성한 두 사람의 관계 변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닥터슬럼프' 제작진은 "3회를 기점으로 남하늘과 여정우의 '심폐 소생' 로맨티 코미디가 본격 시동을 건다.



최만식/기자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엄마까지 잃었다! 강애심이 밝히려 했던 '나유미 사망 사건'의 전말에 궁금증 배가!

이지아가 안타까운 과거사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제(1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극본 정희선/ 연출 박진석/ 제작 하우픽쳐스, 드라마하우스, SLL) 2회에서는 엄마부터 사랑했던 전 연인까지 떠나보내야만 했던 김사라(이지아 분)의 사연이 몰입도를 높였다.

이어 2회 방송 시청률도 수도권 5.2%, 전국 4.9%로 경총 뒤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

김사라는 교도소 수감 중 엄마 박정숙(강애심 분)의 사망으로 귀환을 나오게 됐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에 빠졌던 것도 잠시, 상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노을성(오인석 분)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김사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하지만 박정숙의 죽음에는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노을성의 프리포즈 파티 날 벌어진 '나유미 사망 사건'에 관련된 단서를 알게 된 박정숙은 담당 검사 동기준(강기영 분)을 찾았으나 같은 시각 남서부지검에 있던 노을성이 김새를 눈치챈 것.

동기준이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을 때 박정숙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이후 박정숙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어 동기준 역시 자신에게 조사를 받던 이가 투신하면서 강압 수사라는 오명을 쓰고 검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장례를 치른 후 제대로 각성한 김사라는 출소하던 날 손장미(김선영 분)를 만났다. 수감 중 자신을 찾아와 이혼 해결사로 함께 일해보자고 했던 손장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드시 빼앗긴 아이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욕을 불태웠다.

이로써 손장미는 김사라 덕분에 얻어낸 거액의 이혼 위자료로 운영을, 김사라는 이혼 해결사로 활동을 책임지는 '솔루션'을 결성하며 힘을 합치게 됐다.

그러나 김사라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손장미가 '솔루션'의 자문 변호사로 추천한 사람은 다른 아닌 김사라의 옛 연인이었던 동기준.

두 사람은 결혼식 전날까지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결국 현실을 선택한 김사라의 과거가 밝혀져 애뜻함과 안타까움을 배가시켰다.

김사라는 9년 만에 재회한 동기준에게 '솔루션'의 제안을 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동기준은 자신을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김사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섰으나 이내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아왔다.



김사라와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손을 내민 동기준과 그의 반응에 당황한 김사라의 모습은 미묘한 설렘을 자극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활약할 두 사람의 공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한편, 김사라는 미투 논란에 휘말린 앵커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주원(심이영 분)의 의뢰를 받았다.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하려는 이주원의 말을 진심 어린 말로 구해낸 해결사 김사라의 활약은 시청자들의 마음까지도 따스하게 어루만졌다.

최만식/기자

'미스트롯3' 오유진이 오유진했다! '유진스' 흥폭발 메들리 '세상 꺾고 뒤집었다'

TV CHOSUN '미스트롯3'가 흥폭발 메들리 무대로 세상을 꺾고 뒤집었다.

지난 1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3' 7회는 전국 15.8%(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최고 18.2%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시청률 대박을 터뜨렸다.

이는 7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이자, 주간 전체 예능 1위 기록이다. 18.2% 최고 시청률은 흥이 폭발한 '복드림걸즈'의 마스터 점수 공개의 순간이었다.

3라운드 1대 1 데스매치는 마지막까지 대이변이 발생했다. 구독자수 130만 크리에이터이자 '노력의 아이콘' 수빙수가 '우승상금만 차 한 대깡'인 고아인을 제치고 4라운드에 진출했다.

이후 성악과 트로트를 오가며 고혹적인 무대를 뽐낸 염유리와 화풍정 고음을 발산하며 본인이 해야 할 때는 주인공 자리를 해내는 김나을에게도 야망 없이 칭찬했다. '유진스'는 마스터 점수 1255점을 받으며 현재 1위를 기록했다.

기적의 불사조에서 3라운드 선으로 거듭난 '원조 트로트 요정' 윤서영은 '정통 트로트 강자' 나영, '난초 보이스' 박지은, '트로트 새내기' 화연과 함께 '뽕미닛'을 결성했다.

'뽕미닛'은 이효리의 '텐미닛(10 Minutes)', 홍지윤의 '본내음', 서지오의 '하늬하늬', 김연자의 '진정인가요', 애드워드의 '빛속의 여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열창했다.

연속되는 강한 댄스곡 사이에 정통 트로트를 넣어서 기승전결을 만든 멘토 김연자의 조언은 신의 한 수였다. 나영은 단 이틀밖에 연습 시간이 없었지만 '진정인가요' 솔로 무대로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며 소름을 유발했다.

은혁은 "다음에 누가 메들리 무대를 만든다면 이 무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면서 "느린 템포의 곡이 흥이 깨질 수 있는데 나영이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다. 정통 트로트에서 신나게 바뀌는 흐름이 메들리의 정석이었고 완벽했다"라고 놀라워했다.

장윤정은 메들리 무대에 정점을 찍어준 박지은의 임팩트 강했던 매력적인 목소리에 대해 "어찌 보면 뻔뻔하게 잘 살려 흡수가 됐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애타는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본 김연자는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그는 "나영씨가 연습 때 아쉬웠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내가 말하면 헛갈릴까봐 말을 못하고 연습하라고만 했다"라면서 "그런데 오늘 너무 잘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고생한 제자를 기뻐했다.

'뽕미닛'은 '빛속의 여인' 마스터 점수 1246점을 받으며 현재 2위를 기록했다.

'열정 과다 멘토' 장민호의 애정 어린 잔소리 폭격으로 탄생한 '복드림걸즈'는 관객의 기립을 이끌었다. 3라운드 숙이자 '나로호 6단 고음' 박지은, '퍼포먼스 퀸' 이하늬,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감성 괴물' 빈에서가 함께 했다.

이들은 장윤정의 '장윤정 트윈스트'

장윤정은 카리스마 넘치는 댄스 브레이크로 다시 한 번 '아이돌력 만렙'을 보여준 오유진을 칭찬했다.

그는 "오유진은 전략을 잘 세우고 무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계획대로 멤버들을 이끌어가는 실력이 있다"라면서 "단점이 없는 참가자"라고 높이 샀다.

이어 성악과 트로트를 오가며 고혹적인 무대를 뽐낸 염유리와 화풍정 고음을 발산하며 본인이 해야 할 때는 주인공 자리를 해내는 김나을에게도 야망 없이 칭찬했다. '유진스'는 마스터 점수 1255점을 받으며 현재 1위를 기록했다.

기적의 불사조에서 3라운드 선으로 거듭난 '원조 트로트 요정' 윤서영은 '정통 트로트 강자' 나영, '난초 보이스' 박지은, '트로트 새내기' 화연과 함께 '뽕미닛'을 결성했다.

'뽕미닛'은 이효리의 '텐미닛(10 Minutes)', 홍지윤의 '본내음', 서지오의 '하늬하늬', 김연자의 '진정인가요', 애드워드의 '빛속의 여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열창했다.

연속되는 강한 댄스곡 사이에 정통 트로트를 넣어서 기승전결을 만든 멘토 김연자의 조언은 신의 한 수였다. 나영은 단 이틀밖에 연습 시간이 없었지만 '진정인가요' 솔로 무대로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며 소름을 유발했다.

은혁은 "다음에 누가 메들리 무대를 만든다면 이 무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면서 "느린 템포의 곡이 흥이 깨질 수 있는데 나영이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다. 정통 트로트에서 신나게 바뀌는 흐름이 메들리의 정석이었고 완벽했다"라고 놀라워했다.

장윤정은 메들리 무대에 정점을 찍어준 박지은의 임팩트 강했던 매력적인 목소리에 대해 "어찌 보면 뻔뻔하게 잘 살려 흡수가 됐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애타는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본 김연자는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그는 "나영씨가 연습 때 아쉬웠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내가 말하면 헛갈릴까봐 말을 못하고 연습하라고만 했다"라면서 "그런데 오늘 너무 잘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고생한 제자를 기뻐했다.

'뽕미닛'은 '빛속의 여인' 마스터 점수 1246점을 받으며 현재 2위를 기록했다.

'열정 과다 멘토' 장민호의 애정 어린 잔소리 폭격으로 탄생한 '복드림걸즈'는 관객의 기립을 이끌었다. 3라운드 숙이자 '나로호 6단 고음' 박지은, '퍼포먼스 퀸' 이하늬,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감성 괴물' 빈에서가 함께 했다.

이들은 장윤정의 '장윤정 트윈스트'

로 신나게 무대를 시작한 후 나온아의 '니', 신행일의 '청춘을 돌려다오', 박상철의 '황진이', 서울시스터즈의 '청춘열차'로 안방을 뽐냈게 했다.

주영훈은 "빈에서는 성인들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을텐데 노력을 많이 해서 조화를 이룬 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칭찬했다. '청춘을 돌려다오'의 도입부를 맛깔스럽게 소화한 빈에서는 긴 호흡의 메들리에서 흔들리지 않은 가창력과 능숙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김연우는 "천재가 칼을 가니깐 이렇게 무섭다"라고 박지은과 빈에서의 천재성에 놀라워했다. 이어 그는 "미스김의 팬이 됐다"라고 미스김의 농익은 창법을 높이 평가했다.

장윤정은 "관객 분들이 일어나서 호응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것"이라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관객 평가단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낸 것을 높이 샀다. 복드림걸즈는 마스터 군단으로부터 1221점을 받았다.

관객 평가단 점수 200점은 팀메들리 모든 경연이 끝난 후 공개된다. 관객 평가단 점수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것. 더욱이 아직 무대가 남아 있다.

8회 방송은 3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한 정서주가 3라운드 진의 혜택으로 팀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최강 보컬만 모인 '뽕커벌'이 베일을 벗는다.

정서주를 필두로 김소연, 배아현, 3라운드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킨 '고막여친' 정슬이 어벤저스를 결성했다. '뽕커벌'은 "1등이 목표"라고 했던 멘토 장윤정과 손잡고 무대를 씹어먹을 준비를 마쳤다.

최만식/기자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학급 예비 편성 완료

학생 20만 9,428명에 대해 1만 1,360학급 편성 임종식 교육감,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변동 추이 검토,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운용해, 안정적인 학업에 전념하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1,411교, 학생 20만 9,428명에 대해 1만 1,360학급을 예비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학급 예비편성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급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학급을 편성해 교실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4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학급 예비편성 결과로 지난해보다 학교 수는 22교, 학생 수는 7,667명, 학급 수는 154학급이 줄었다.

초등학교의 읍·면 지역 학급편성 기준을 지난해 1학년 24명, 2~6학

년 26명에서 올해 전 학년, 학급 24명으로 조정했으며, 시 지역은 학급당 28명(1학년 27명)으로 전년과 같다.

이번 학급 예비편성 이후 변동분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한 2024학년도 도내 전체 학교의 최종 학급편성은 3월 4일 확정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자세히 검토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운용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갑진년 설날 준비는 전통시장이 최고!”

포항교육지원청,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포항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갑진년 설날을 앞두고 2. 2.(금)에 포항 관내 여러 전통시장(죽도시장 등)을 방문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천종복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제수용품과 가족·친지에게 전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전통시장 운영현황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포함사랑상품권 및 은누리상품권을 구입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천종복 교육장은 “고물리 고물가 시



대에 명절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선한 먹거리와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주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당부했다.

윤타용/기자

구천초 배우고 탐구하고 즐거운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지원 특별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

구천초등학교는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지원을 받아 지리적 소외지역의 소규모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배우고, 탐구하고, 즐기는 ‘배탐즐’이라는 명칭으로 준비된 이번 특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3주 동안 매일 4차시로 운영돼, 부족한 과목을 복습하는 배움수업과, 피지컬 컴퓨팅과 3D모델링 기술을 익히는 탐구 수업 그리고 전과정을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요리를 만드는 즐거운 체험중심 수업으로 구성되어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 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인 구천초등학교의 2,3,5,6학년 학생 모두가 참가하여 기초학력도 증진하고 미래사회와 직결된 과학기술 주제의 탐구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영어로 요리를 만드는 즐거운 체험을 가질 수 있어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자칫 무료해 질 수 있는 긴 겨울방학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다.

2023학년도 겨울방학 ‘배탐즐 겨울 프로그램’에 참가한 구천초 6학년 S학생은 “방학 때 매일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공부도 하고, SW프로그램도 배우고 요리도 하며 영어를 배우니 이번 방

학이 아주 보람되고 특별 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천초 정찬명 교장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의 지원이 있어 지리적으로 소외된 농촌 학생들에게 특별한 겨울방학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기획하고 운영하여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삶을 개척하는 역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경북교육청, 상반기 152개 늘봄선도학교 운영 준비 본격적 돌입

희망하는 저학년 학생 누구나 누리고 만족하는 늘봄학교 임종식 교육감,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2024년 1학기 늘봄선도학교를 공모해 152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늘봄선도학교는 새 학기부터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

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며,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17명의 일 반직 직원을 증원 배치해 늘봄선도학교

의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고, 늘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별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선도학교에는 152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정되어 늘봄업무 전담과

수업 지원을 통해 기존 교원의 업무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 공고부터 면접까지 채용 업무를 지원하며, 학교가 희망할 때는 자체 채용도 가능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영덕교육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학부모님과 지역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 배움에 주신 격려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더욱 노력하여 잠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그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새로운 한 해를 채워가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올 해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이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대한민국의 **김, 울진**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24.
2.22(목) ~ 25(일)
울진군 후포항 일원

맛있는 대게 여행,
후포항에서 모이자~

|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 후원 |  한수원주 | 한울원자력본부